

1910년 경 전국 최고의 소금을 생산하던
주안염전의 모습 (사진 · 화도진도서관 제공)

인천이 '짭물'이란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염전 덕분이다. 주안염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천연 소금을 생산한 곳이다. 1907년 시험적으로 주안 간석지 3천평을 염전으로 만들면서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주안, 소래 등에 대규모 염전지대가 조성되었고 한때 인천의 특산물로 소금이 지정되기도 했다. 1960년대 광활한 소금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염전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대규모 공장들과 주택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한 평의 소금밭도 남은 게 없다. 그야말로 '鹽田碧海(염전벽해)'를 실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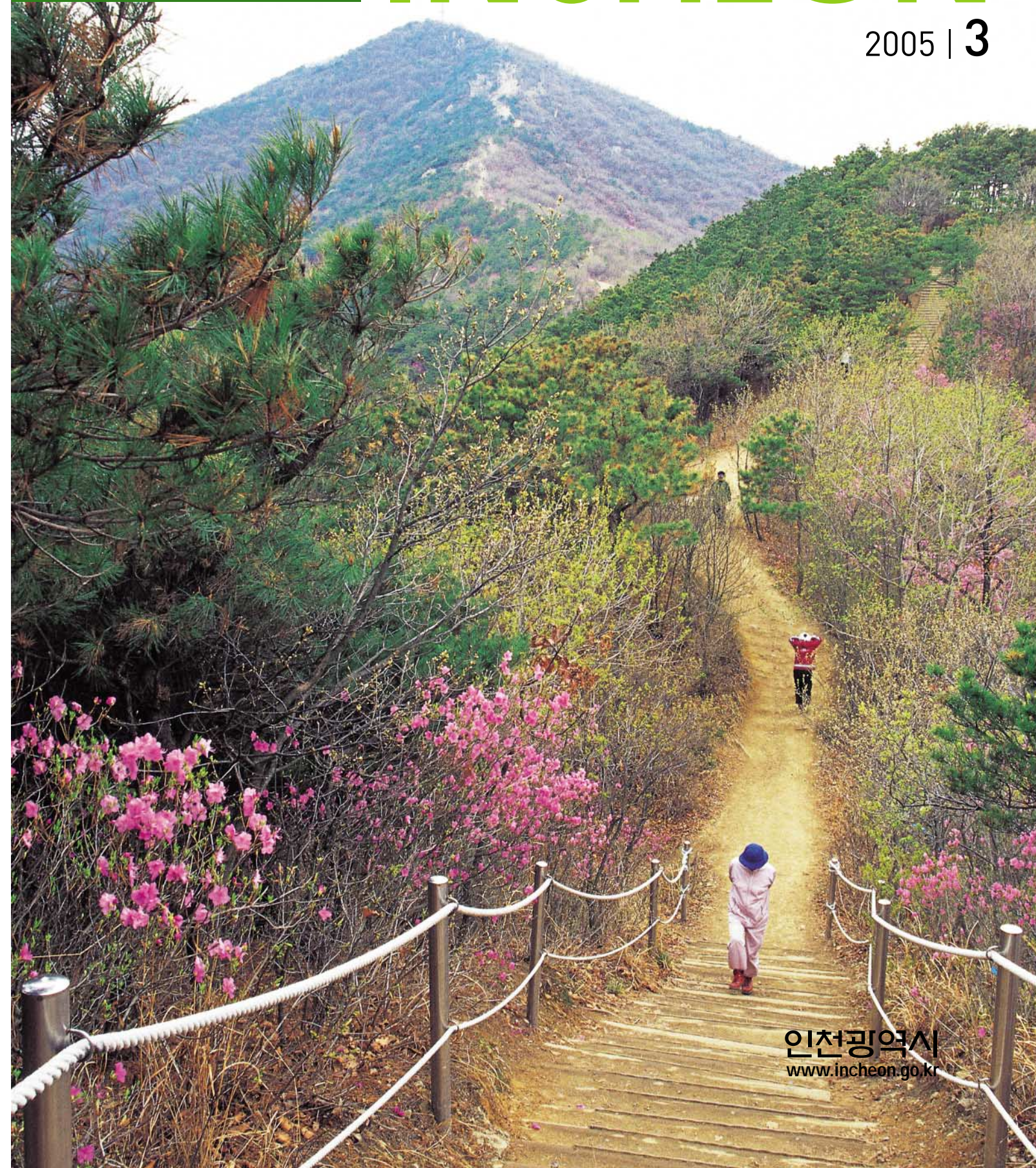


주안 현대아파트에서 바라본 옛 염전지대.
계양산과 철마산이 멀리 보인다
(2004년 · 사진가 최용백 작품)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5 | 3



굿모닝인천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공보관실) · 김성환 · 김정식(자유사진가)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것입니다.



2019년 1월 15일

문화 사업 기우는 **동자극**만

아동용 공연 시장은 2018년 10월 10일 기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극 시장이 2018년 10월 10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 시장은 2018년 10월 10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공연 시장

아동용 공연 시장은 2018년 10월 10일 기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극 시장이 2018년 10월 10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 시장은 2018년 10월 10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공연 시장

아동용 공연 시장은 2018년 10월 10일 기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극 시장이 2018년 10월 10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 시장은 2018년 10월 10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 10월 14일 목요일 10월 14일 목요일

노르웨이 출신의 '악마'의 유혹자

공연상당사
김수경 씨

그는 유혹의 달인이었다. 평범한 남자였다. 애초에 그는 공연이 아니라 배우라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배우라는 꿈을 꾸고 있는 남자가 공연이라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는 1994년 10월 14일, 노르웨이 출신의 '악마'의 유혹자 김수경 씨를 만났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악마'의 유혹자 김수경 씨가 되었다.

60 여기가 거기 | 주안염전

표지설명 _ 진달래 만발한 계양산 등산로 (지난호 표지사진은 철종외가로 바로 잡습니다.)



봄기운 ‘꿈틀’ 기지가 ‘쭉~욱’

‘머리가 아프면 운동장에 가라’는 말이 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체나 정신의 항상성(homeostasis) 유지 능력이 떨어져 건강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때문에 현대인들의 각종 질병은 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 또는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센터나 야외에서 각종 스포츠를 즐기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낮이 밤보다 길어지고 대지의 기온도 왕성해지는 봄이면 사람의 생리적 활동도 왕성해지면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 움직이고 싶어진다.

봄철 운동은 부담적은 스트레칭부터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낼 뿐 아니라 운동량도 적어 심폐기능이나 근·골격계 등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손상되는 등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다.

겨우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건강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운동의 강도나 시간·빈도를 설정해야 하며, 운동이 재미있고 즐겁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종목을 선택해야 한다.

처음에는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 피로가 누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 가야한다. 일시적이고 갑작스런 강한 운동은 몸에 부담을 주고 때로는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 전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 등 5~10분간의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을 충분히 이완시켜 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은 봄철 노곤한 잠이 쏟아지는 춘곤증 퇴치에도 좋은 운동이다. 특히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사무직의 경우 1시간 일하고 5분 정도씩만 몸을 쭉쭉 펴주는 스트레칭을 해줘도 졸음예방은 물론 몸도 한결 가벼워진다.

운동시간은 20~30분 정도가 적당하며 운동의 횟수는 일주일에 4~5회가 알맞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운동전과 마찬가지로 5~10분 정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줘야 근육에 무리가 없을 뿐더러 심폐 기능이 안정된다.





어떻게 시작할까

운동을 하는데는 목표를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동목표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한다. 예를 들면 스트레칭 20분, 줄넘기 20분 하는 식이다. 또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이 함께 운동하면 스트레스 해소 뿐만아니라 사고 등 다양한 운동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장기간 계속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운동을 마친 뒤에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취해야 한다. 특히 운동 중에 소비된 에너지와 신진대사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 즉 단백질과 무기질 등을 보충해야 신체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자신에 맞는 운동 찾기

운동이 좋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거나 자신의 건강상태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운동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한테는 어떤 운동이 좋고, 어떤 운동은 피해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시 남구보건소(870-3532)에서는 주민체력관리실을 운영해 '운동 처방'을 해주고 있다. 운동처방이란 운동을 하는 목적이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검사를 통해 개인의 체력 수준, 건강상태, 연령 등을 고려한 운동의 종류와 운동의 형식을 선택해 주고 또 운동을 어느 정도의 양과 질로,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첨단 의학 장비로 운동을 하기에 앞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질환이나 건강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 의학검사,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등을 하게 된다. 주민체력관리센터는 신장·체중·비만도검사, 폐기능검사, 순환검사 등 13종의 기초체력검사와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를 통해 개인에게 적절한 운동과 방법을 알려준다.

어디서 할까

자신에 맞는 운동과 방법을 찾았으면 그대로 실천하면 되겠지만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봄철운동으로 걷기를 비롯해 등산, 조깅, 에어로빅, 수영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한다. 조깅을 하기에 적당한 곳으로는 집앞 학교 운동장 등이 제격이겠지만 특히 문학경기장과 송의종합경기장이 눈에 띈다.

문학경기장(456-2114)은 굳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기장 주변을 도는 것만으로도 조깅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문학경기장 안으

로 들어가면 400m 짜리 육상트랙을 갖춘 보조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다. 문학경기장의 주경기장과 형태가 똑같아 육상선수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보조경기장 트랙은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지는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트랙 주변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아침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한다. 시민들이 운동을 자기 몸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송의종합경기장 운동장(882-7149, 1034)도 일반시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고급 우레탄트랙이 깔린 육상트랙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체육행사나 경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단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거나 유모차,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 바퀴달린 기구나 신발을 신고는 이용할 수 없다.

에어로빅을 스포츠센터 등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각 군·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조교실을 이용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삼조다. 대부분의 생활체조교실은 봄철을 맞아 3월부터 시작된다. 각 군·구에 있는 대부분의 공원이나

큰 광장에서는 모두 체조교실이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도진공원, 수봉공원, 부평공원, 신트리공원, 문학경기장, 남동구청체육광장 등이다.

걷기·달리기와 함께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수영에 도전해 보고픈 이라면 새로 문을 연 부평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계산국민체육센터, 시립도원수영장, 여성문화회관수영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만하다. 공공시설은 사실 수영장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해 인기가.

3월 1일 정식으로 문을 연 **부평국민체육센터(521-3003)**는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무료 개관 행사를 갖고 시민들에게 선을 보였다. 수영장은 25m 레인 6개를 갖추고 있다. 레인 수는 일반 수영장과 비슷하지만 폭이 2.5m로 넓어서 양쪽으로 접영을 하며 오가기에도 넉넉하다. 강습반은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데 강습은 일주일에 세 차례다. 수영장은 토요일과 둘째, 넷째 일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에는 유아용 풀이 따로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에게 인기가. 또한 온열실에서 몸을 따뜻하게 덥힐 수도 있고 기포탕과 스파탕은 마사지 효과를 준다.

계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556-2146~8)은 25m 레인 7개를 갖추고 있고 어린이 전용풀과 피로를 풀어주는 사우나가 설치돼 있다. 전문 강사에게 수준에 맞는 단계별 강습을 받을 수 있고 성인, 여성, 어린이, 직장인 등 계층에 맞는 강습이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뤄진다. 강습은 일주일에 두 차례 진행되고 나머지 4일은 자유수영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스노우클링 강습을 일년에 4~6회 정도 하고 있다. 이틀 동안 두 시간씩 강습을 받으면 장비 이용이나 웬만한 기본 동작을 익힐 수 있다. 올해 첫 스노우클링 무료강습은 4월에 있을 예정이다.

시립도원수영장(882-1034)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전국대회가 치러질 정도의 규격 레인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길이 50m, 너비 21m, 코스 8m의 레인이어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기에 적당하다. 게다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어 수영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기에 좋다. 강습은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 일주일에 네 차례나 강습이 있어 수영실력을 금세 향상시킬 수 있다. 게다가 수영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아쿠아로빅 강습을 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물을 이용한 운동에 그만이다.

도움말 _ 남구보건소 운동처방사 윤철수 / 글 _ 정경애 (happyjka@incheon.go.kr) / 김성환 (자유사진가·koin1@incheon.go.kr)

배수지 체육시설

우리가족 산책 코스로 딱이네



송현배수지

각 가정에 수도물을 공급해 주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배수지는 물탱크를 땅 밑에 갖고 있는 곳이라 지상은 훌륭한 녹지를 갖추고 있다. 우리시는 녹지와 조경이 잘 정비된 배수지 상부를 지역 주민들이 도심속 소공원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배수지의 녹지는 24시간 개방되기 때문에 이용시간은 따로 없다. 단, 장수배수지는 인천시 공도대표선수들의 연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동협회 관계자에게만 개방되고, 계산 1배수지는 아테네 올림픽 양궁경기에서 금메달을 땀던 박경모 선수 등 계양구청 양궁대표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문의 _ 상수도 사업본부 (870-9256)

■배수지 체육시설 개방현황

배수지명	소 재 지	면적(㎡)	체육시설현황
송현	동구 송현동 23-62번지	38,694	잔디산책코스
수봉1	남구 도화동 산66-6번지	18,118	미개방
수봉2	남구 도화동 산50-1번지	14,240	배드민턴장
문학	남구 주안7동 1292-19	32,233	미개방
학익	남구 학익동 산80-1번지	32,233	축구장 등
연수	연수구	41,700	축구장등
장수	남동구 만수동 산69-1번지 (남동정수사업소내)	65,595	잔디구장
부평2	부평구 부평2동 768-320	18,152	잔디산책코스
부평1	부평구 산곡동 산136-1번지	17,156	게이트볼장 등
만수	남동구	2,172	미개방
계산1	계양구 계산동 763-15	33,721	양궁장
계산2	계양구 계산동 548-5	4,070	미개방
연희	서구 연희동 산42-1 일원	28,283	잔디산책코스
검단	서구 마전동 685-23번지	9,693	잔디산책코스
석남	서구 석남동 산6-4번지 일원	21,639	잔디산책코스
강화	강화군	11,878	미개방
자유공원	중구 북성동(자유공원내)	343	공원내 잔디구장
용현	남구 송의동(수봉공원내)	686	공원내 잔디구장
수봉공원	남구 송의동(수봉공원내)	248	공원내 잔디구장
가좌	서구 가좌동 1-11	16,742	배드민턴장
공항배후단지	중구 영종동	5,870	잔디산책코스



가정은 節水 (절수) 기업은 愛水 (애수) 지방정부는 親水 (친수)

오는 22일은 '물의 날'이다. 물의 절대적 가치에 비해 물이 '물값'으로 취급되는 현실. 그래서 물의 소중함, 지혜로운 사용방법을 되새기는 날이다. 요즘엔 '물절약'으로 대표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아껴 쓰고, 깨끗하게 쓰고, 다시 쓰자는 적극적인 물사랑 운동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사진제공 - 하천살리기 추진단

아직도 물을 '물 쓰듯' 하십니까



지붕이 빗물받이인 문학경기장(위)은 600톤급 빗물활용 시설(아래)을 갖추고 있다.

에 닿지 않고 수돗물보다 수질이 떨어지더라도 이용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중수도를 도입하면 수돗물 공급량을 줄일 수 있고 수도시설을 늘리는데 필요한 투자예산을 더 좋은 수도물 생산에 투입할 수 있으며 원수공급량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댐건설 수요가 감소되는 효과도 있다.

한편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의 중요성 체험과 수돗물 안정성 홍보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물 사랑 여름캠프'를 열기도 한다. 소중한 물을 잘 보존하고 사랑하는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만족스런 급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력의 하나로 지난해부터는 '물 사랑 지킴이'를 꾸렸다. 상수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의, 제보가 이들의 임무다.

이 모두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물에 얹힌 관심과 사랑의 결실일 것이다.



중수도 시스템은 수세식 화장실 용수에 흔히 활용된다.

옛날엔 미역감고 물고기 잡으며 놀았겠지



승기천

뿐만아니라 우리의 젖줄이자 유년의 추억을 기림지게 했던 강과 개울을 죽음에서 생명 세계로 건져내기 위한 관심도 부족 높아가고 있다.

차가운 겨울 바람속 어느날 문득 찾은 승기천은 고요했다. 시커먼 물이 흐르는지 고여있는지 모를 승기천에서는 악취가 진동한다. 하천 바닥에는 멀건 죽처럼 오니가 뒤엉켜있다. 공사가 채 완료되지 못한 자전거 도로와 가장자리 산책로에는 자건거를 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이 점점이 찍혀 있다.

총 사업비 330억원을 세워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승기천 정비사업이 유지용수 확보문제로 중단됐다. 최근 계속하기로 결정됐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은 하천의 운명을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웅변한다. 승기천은 오랜 기다림 끝에 곧 새롭게 꿈틀대리라.

장수천의 형편은 그래도 나아 보였다. 물가 얕은 곳이 얼음으로 덮인 가운데 운치있는 화음을 들려주며 연신 아래로 아래로 흐른다. 하천을 따라 곳곳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버려진 갯가지 쓰레기가 불쌍사나운 불협화음을 연출한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어렵사리 자연형 하천 모양을 갖춘 장수천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반대편 도시 외곽엔 공촌천이 흐른다. 계양산을 모태로 시작되어 논과 밭을 가로지른다. 계곡물과 공촌정수장 물이 흘러 유지용수 걱정이 덜한 이곳 역시 오페수 유입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을 느끼게 한다. 녹슬고 삐딱하니 기울어진 채 생활쓰레기 투기를 경고하는 안내판이 생뚱맞아 보인다. 공촌천 상류부 일부 구간은 정화작용이 우수하다는 창포를 심고 자연형 하천 복원작업이 진행되어 있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다가가자 풀섶에서 날아오른 물새 한 마리가 반가울 뿐이다.

도심을 그대로 관통하는 굴포천은 혐오 대상이자 골칫거리 민원이다. 개발의 물결을 따라 대규모 아파트가 하천을 따라 늘어서고 일부 구간은 우리 눈에서 사라졌다. 덮개를 씌웠기 때문이다. ‘썩는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 ‘파리, 모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는다’는 목소리의 힘이다. 주변 색깔과 냄새와 어울리지 않을 알록달록한 컨테이너박스가 무진장한 힘을 발휘할까? 사무실 주인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의 굴포천을 살리자는 외침이 검은 수의를 걸친 굴포천에 날개옷을 입히길 희망해 본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을 형상화한 사무실 벽화 그대로가 우리의 하천이기를.



위에서부터 공촌천 상류, 굴포천, 하천 옆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사무실

풍요와 생명 가득한 하천을 꿈꾸며



하천살리기추진단 회의 장면

우리시는 오는 2007년까지 890억원을 투입해 승기천, 굴포천, 청천천, 장수천, 공촌천, 나진포천 등 6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금은 시커먼 물이 흐르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하수도’나 다름없는 그곳이지만 물고기 뛰어놀고 맘껏 물장구치던 예전의 맑은 하천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3년 9월엔 민·관 공동 협력체인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참여형 하천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각 하천별 특성과 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하천복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기술적, 정책적 방향제시도 중요한 역할이었다. 올말 인천 하천의 모든 것을 담아낼 하천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하천아카데미, 생생한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게 될 ‘내고장 하천복원역사 바로알기’ 등은 봄 조성을 위한 지속사업이다. 생태형 하천 테마 설정 작업에 따라 현재까지 ‘도심지에 철새가 날아드는 생태 승기천’과 ‘자연과 이야기하고 걷고 싶은 굴포천’, ‘창포꽃 하늘거리는 공촌천’ 등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생명의 영혼을 불어넣기 위해 가야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유지용수는 풍납취수장 상수원수를 쓰기로 한 굴포천만이 유일하다. 사회 구성원들 간 공동 전략 구축과 정보의 공유 등 좀더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 운용해야하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민, 특히 하천주변 주민, 기업 등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하천을 살려내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이다.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물절약 ‘선택 아닌 필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물절약은 기본 예절이자 교육되어야 할 지침이나 마찬가지다. 제한된 자원인 물을 깨끗하고 알뜰살뜰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세수, 양치, 면도,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한다. 양치질할 때 컵을 사용하면 1회 4.8ℓ의 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이를 실천하면 한 해 1억4천만톤의 물과 700억원의 수도물 생산비가 절약된다.



♣목욕할 때는 욕조대신 샤워기를 이용하고 샤워시간을 줄인다.

욕조대신 샤워기를 사용할 경우 1회 150ℓ, 가구 당 연간 80톤의 물이 절약된다. 전국 1,300만 가구가 실천하면 10억4천만톤의 물이 절약된다.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하고 절수형 세탁기를 사용한다.

보통 세탁기는 세탁물의 양과 상관없이 일정한 물을 사용하므로 적당한 분량만큼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하거나 절수형 세탁기를 사용하면 매우 효율적이다.



♣허드렛물을 재 이용한다.

목욕한 물은 세탁이나 청소용으로 재사용하고 화분이나 정원 등에는 과일이나 야채를 씻고 난 물을 주면 좋다.



♣화장실과 목욕탕 등에 절수기기를 설치한다.

일반변기(13ℓ)를 절수형변기(9ℓ)로 바꾸면 가구당 연간 60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전국 1,300만가구가 절수형 변기로 바꾸면 한 해 7억 8천만톤의 물이 절약된다.



차 한 잔 | 장수천 네트워크 김성근위원장

맑은 생태하천 만들기 ‘한번 빠져 봅시다’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우리가 망쳐놓고 지금와서 하천을 ‘복원’한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장수천은 우여곡절 끝에 기존 치수개념의 복원공사 대신 보완된 자연형 하천공사를 최근 끝냈다. 봄이 오면 환경에 맞는 나무와 꽃, 수생식물 등을 고루 심을 계획이다. 향후 인천대 공원측과 협의를 해가며 상류부에 실험적으로나마 습지를 만들어볼 욕심이다. 길이 6.9Km의 장수천은 상류엔 인천대공원, 하류엔 소래생태학습장에 자리잡고 있어 의지 여하에 따라 복원의 가치와 활용도가 우수한 경우이다. 구간도 짧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하천 자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주변 오염원 차단이 꼭 이뤄져야 한다. 겉꾸밈으로 당장 보기 좋게만 만든다면 정작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쓰레기더미 쌓이는 반생태적인 하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생명으로 깨어난 하천은 주민이 향유하는 대상이자 아기를 보살피는 듯한 유지 관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 민·관, 남녀노소가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해야 하는 대목이다.



사진제공 하천살리기추진단

문화 씨앗 키우는 못자리판



학산소극장

동사무소 공간이 환골탈태했다. 지난해 10월 남구 용현4동 주민자치센터 4층에 문을 연 학산소극장은 연극전용극장이다. 남구학산문화원이 운영하는 이 소극장은 120석의 객석과 최첨단 조명·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다. 크기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변용무대와 전자식 원터치 시스템으로 객석의자를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어 마당놀이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인천 극단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떤 극단이든 저렴한 대관비로 작품을 올릴 수 있다. 장두이 모노극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터' 등 한달 남짓 진행된 개관기념 기획공연에 7,000여명의 관객이 몰려, 놀라운 객석점유율을 보이기도 했다. 올 한해를 소극장 정착의 해로 삼고 각 시즌마다 특별한 주제에 맞는 공연을 선보이는 이른바 '시즌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가을쯤에는 전국소극장 연극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하대 후문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학산소극장은 대학생 관객을 흡입해 인천의 소극장 운동에 새로운 불씨를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위치 _ 인하대 후문에서 용일주유소 방면 용현4동사무소 4층 (☎ 881-3993)

돌체소극장

돌체에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문화예술인' 행세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1979년 싸리재 고개 근처 기독교병원 앞 얼음공장에 문을 연 돌체소극장은 인천연극의 산실이다. 마임리스트 최규호씨와 부인 박상숙씨가 1983년 새롭게 연극전용 소극장으로 재개관하면서 인천연극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40평 남짓 한 공간에 100여석의 객석을 갖춘 돌체는 '춤추는 어릿광대' '겨울나그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등 한 해 서너 차례 이상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이와 함께 연극배우 지망생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는 한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연극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극학교'의 역할도 톡톡히 해왔다. 언제부턴가 객석은 차츰 썰렁하게 비기 시작했고 무대의 열기도 점차 식어갔다. 지난해 극장수리를 위해 공사를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는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다. 대신에 극단은 '출장공연' 중이다. 얼마 전에 교도소 미결수들의 이야기인 '학익동 278'을 인천여성의광장 공연장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기도 했다. 텔런트 최영준, 고 김성찬씨가 거쳐 갔던 30년 전통의 돌체소극장은 이제 경동시대를 접고 새로운 장소에 등지를 틀 준비를 하고 있다.

위치 _ 중구 경동 기독교병원 바로 앞 (☎ 772-7361)

소극장 공연은 아기자기 한 맛이 있다. 대극장 무대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객석이 코앞이기 때문에 배우의 표정이며 몸짓, 심지어 땀방울까지 '라이브'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소극장은 공연생태계의 1차 생산자이다. 창작산실인 소극장이 활발해야 전체 공연계도 활기를 찾을 수 있다. 80년대 잠시나마 소극장 전성시대를 맞았던 인천이 다시 소극장의 부흥기를 맞고 있다. 이제 소극장의 불씨를 다시 키우는 것은 극단과 관객의 몫이다.



소극장 가온누리

가온누리는 '세상의 중심'이다. 가운데를 뜻하는 옛말 '가운데'와 세상이라는 순 우리말 '누리'가 합쳐진 말이다. 연극의 중심을 꿈꾸며 가온누리는 지난 2003년 3월1일에 답동성당 근처에서 문을 열었다. 등반이 없는 널빤지 모양의 120석 객석과 서너평의 무대. 그리고 의자와 사방 벽이 온통 검정색으로 칠해진 지하 소극장은 흡사 창고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실험적 작품들을 올리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보인다. 연중 내내 공연을 하지는 못하지만 가온누리의 무대는 절대로 식지 않는다. 지난해는 매주 토·일요일에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주말연극산책'을 마련, 주5일 근무 시대를 맞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소극장으로 향하게 했다. 이와 함께 만석동을 소재로 한 '깡이부리말 아이들'은 극단 동이에 의해 가온누리 소극장 무대에 올려졌다가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서울에 입성하며 '세상의 중심'에 한발짝 다가서기도 했다.

위치 _ 중구 답동 가톨릭회관 옆 삼아모피 빌딩 지하 (☎ 765-9756)

씨·아리 소극장

인현동에는 아픔이 있다. 1999년 동인천 부근 한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5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었다. 씨앗의 의미인 '씨'와 동아리의 '아리'가 결합된 이름 씨·아리 소극장은 지난해 10월 인현동 호프집 빌딩 지하에 문을 열었다. 화재사건 이후 몇 년간 그야말로 '죽어있던' 공간을 극단 놀이&축제의 대표 진정하씨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30평이 조금 넘는 공간에는 너댓명의 배우가 동시에 오르면 꼭 찰 작은 무대와 50명도 채 앉지 못할 객석으로 꾸며져 있지만 이 소극장은 청소년의 거리에 작은 씨앗을 뿌리고 있다. 개관기념 공연으로 '만들레, 작은 천국'을 무대에 올린데 이어 지난 연말에 '색시공'을 공연한 씨·아리 소극장은 다른 소극장과는 달리 사회대안적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극을 통한 치유는 물론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스튜디오 역할도 할 계획이다.

위치 _ 동인천역 답동사거리 방향 버스 정류장 프로스펙스 매장을 끼고 50m 오르면 모이세돈가스 지하 (☎ 016-312-6412)



잔치마당 소극장

‘풍물 도시’ 부평에 잔치마당이 펼쳐진다. 이제 풍물공연도 소극장에서 감상하는 시대가 왔다. 잔치마당소극장은 난타, 타악, 국악 등을 상시 공연하는 풍물 전용극장이다. 무대가 15평에 객석이 80~100석으로 역동적인 풍물공연의 특성상 무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우리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풍물패 잔치마당예술단(단장 서광일)이 연주하는 전통 타악 연주와 퍼포먼스 난타 등 신명나는 풍물공연이 펼쳐진다. 이밖에 명인, 명창 국악인들의 초청공연과 품바, 마당놀이 등도 무대에 올려진다. 거리나 노천무대에서의 풍물공연과는 달리 사방이 막힌 지하소극장에서의 타악콘서트는 객석에 앉은 관객을 그냥 ‘감상’ 하게 만들지 않는다. 공연이 한창 진행되다 보면 누가 풍물패고 누가 관객인지 모르는 상황이 한바탕 연출된다.

위치 _ 부평삼거리에서 백운역 고가 못미처 오른쪽 만월빌딩 지하 (☎ 501-1454)

시연센 소극장

성당의 지하에서 문화향기가 폴폴 난다. 그 옛날, 남구 용현동 천주교회 지하식당 옆에는 아주 작은 소극장이 있었다. 아마 여성성학교나 성탄절에 아이들 성극이 펼쳐졌던 곳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10년 전에 불이 났다. 그 후 그 공간은 창고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도 사라져 버렸다. 지난해 12월 30일 망각의 공간에 다시 조명이 환하게 비춰졌다. 성당과 남구청 그리고 전 시립극단 예술감독 박은희씨에 의해 그 공간은 다시 소극장으로 부활했다. 150명이 앉을 수 있는 객석과 조립식용 텃마루로 만든 무대는 흡사 신촌에 있는 산울림소극장을 닮았다고들 한다. 주변 구조물을 적절히 이용해 양증맞은 분장실과 음향실도 확보했다. 무엇보다 식당 옆에 비어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마루방과 대형거울을 갖춘 넓은 연습실을 마련했다. ‘시연센’은 시민교육연극센터를 줄인 말, 교육연극전문가답게 박은희씨는 개관기념공연으로 TIE(Theatre-In-Education) 연극 ‘신촌비둘기’를 무대에 올렸다. 시연센에서는 소극장 시설을 이용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연극교실을 개설한다.

위치 _ 인하대 후문 건너 롯데리아 골목 150m 용현천주교회 지하 (☎ 422-4409)



부평문화사랑방

지난해 1월 부평 들판에 문화 흙씨가 뿌려졌다. 부평구 갈산2동사무소 3층에 자리잡은 부평문화사랑방은 ‘문화사랑방’이란 말 그대로 편안하고 친근한 문화공간이다. 총 140여평의 공간에 벽돌 하나 높이의 마루바닥 무대와 180석의 객석은 배우와 관람객을 구분 짓지 않는다. 3면이 객석인 특이한 구조 때문에 공연장의 분위기가 빨리 달궈지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개관 이래 2월14일 ‘대한민국풍물명인전’을 시작으로 12월10일 한해를 마감하는 송년음악회 ‘The Memory Ray Jung’까지 총 34개 공연을 소화해 냈다.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 공연장이라 공연내용이 시시할거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대공연장에서조차 초대하기 쉽지 않은 알토란같은 공연아이템을 기획함으로써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로 향하던 많은 시민들을 부평역에서 내리게 한, 아랫목 뜨끈한 문화사랑방이다.

위치 _ 부평 신트리공원사거리에서 갈산중학교 방면 갈산2동사무소 (☎ 505-5995)

글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인천 소극장 어제와 오늘

인천 용동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장인 협률사가 고종 31년(1894)에 세워졌다. 그곳에서 신파극 ‘육혈포강도’ 등 신파극이 올려졌다. 협률사는 현재의 애관극장의 전신이다.

시대를 건너 뛰어, 1979년 12월 경동 반지하 건물에 소극장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돌체가 문을 열었고 84년에 경동예술극장(대표 정진), 87년에 미추홀소극장(대표 김중원)과 신포아트홀(대표 권용성)이 문을 열었다. 이어 이듬해인 88년에 배다리예술극장(대표 이원식)이 개관하는 등 인천의 소극장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인천의 소극장 부흥기는 오래 가지 못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돌체를 빼고는 90년 이전에 모두 문을 닫았다. 이후 한동안 소극장은 더 이상 생기지 못하다가 최근에 가온누리, 학산소극장 등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해 개관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옛 축현초교)에 220석의 소공연장 이든홀이 개관했고 문학야구장에 소극장이 들어서는 등 공공시설에도 작은 문화공간이 계속 들어설 예정이다.

Whiteday in LOVE concert

이기찬 · 춘자 · 프리스타일

언제 들어도 가슴에 스며드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가수 이기찬. 개성적인 우먼파워 춘자와 자유로운 그들만의 프리스타일을 만끽할 수 있는 무대이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들의 음악은 물론 기념티 증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무대 등 외로운 솔로부터 화려한 커플까지 즐거운 볼거리와 들을거리, 놀거리 가득한 무대를 선보인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인 리 마리오까지 깜짝 출연하다.

일시 _ 3월 12일(토) 오후 4시 · 7시 30분
장소 _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1층) 40,000원 / S석(2층) 30,000원
문의 _ 월드기획 (565-4076)

Lovely~Concert

박화요비 · 바이브 · KCM



대한민국 R&B 대표가수들이 인천에 온다. 한층 성숙해진 모습과 매력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박화요비. 이번 콘서트에서 그녀는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줄 것이다. 음반 그 자체만으로 음악팬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남성3인조 바이브는 오직 음악에 대한 자신감만으로 조심스럽게 활동하며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룹이다. K.C.M은 지난해 종영된 드라마 '때려'의 OST를 부른 실력파 가수로 허스키 하면서도 높고 깊은 음색을 지니고 있다.

일시 _ 3월 26일(토) 오후 4시 ·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1층) 50,000원 / S석(2층) 40,000원
문의 _ 창라이프 (1566-6551)

극 단 차 / 이 / 무 행복한 가족

연극 <행복한 가족>은 가슴 찡한 블랙코미디이다. 아내의 기일을 맞아 모든 가족을 불러들이는 허노인. 먼저 도착해 있는 장남 내외는 시종 허노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다. 뒤늦게 도착한 딸 내외 그리고 막내아들의 도착으로 시작되는 반전은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진행된다. 극단 차/이/무는 '차원이동무대선(次元移動舞臺船)'의 준말로 관객은 차원이동무대선의 승객이다.

일시 _ 3월 15일(화) ~ 27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6시
장소 _ 학산소극장
티켓 _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_ 남구학산문화원 (866-3993, www.haksanculture.or.kr)

가 족 뮤 지 켈 용고집전



'2002춘향전', '오페라 아이다' 등의 무대를 제작했던 한국무대에서 무대장치를 맡아 수준 높은 가족뮤지컬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_ 3월 16일(수) 오후 6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찌리재홀
티켓 _ 무료
문의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760-3447)

국 립 합 창 단 신 춘 음 악 회 봄의 노래



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최고의 수준으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세계의 무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DIE JAHRESZEITEN' (사계), Five Flower Songs, op.47(B. Britten), 'To Daffodils' (수선화에게), 'The Evening Primrose' (달맞이 꽃) 등을 들려준다.

일시 _ 3월 18일(금) 오후 7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찌리재홀
티켓 _ 일반(전석)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760-3447)



3막 4장으로 구성된 대형 가족 뮤지컬로서 전통장단과 가락을 기본 구성으로 현대음악의 한 장르인 재즈, 발라드, 록 음악을 가미한 신명나는 무대이다. 'CATS', '아가씨와 건달들',

한승기 Soul of the Live

'Soul of the Live'는 Folk 와 Rock이 조화를 이룬 강렬한 무대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열정의 공연이 될 것이다. 한승기는 지난 1981년 5인조 밴드 휘닉스를 결성하고 '이종환의 쉼브르'에서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했다. 데뷔앨범 '한때 흐리고 갸' 이후 '연인', 'Soul of the Live'를 발매했다.



일시 _ 3월 19일(토) 오후 7시
장소 _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1층) 40,000원 / S석(2층) 30,000원
문의 _ 월드기획 (565-4076, www.worldproject.co.kr)

뮤 지 켈 사랑은 비를 타고

1995년 첫 공연을 시작한 국내 순수 창작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가 올해 공연 10주년을 맞았다. 거듭되는 앵콜 공연을 통해 '사.비.타'란 애칭으로 불릴 만큼 관객들에게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완성도 높은 뮤지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10주년 기념공연은 재기 넘치는 연출력과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력이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볼만한 공연으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몰이 중이다. 오해로 연락을 끊고 지내던 형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줄거리와 가슴을 적시는 아름다운 멜로디의 곡들이 더해져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훈훈한 공연이 될 것이다.



일시 _ 3월 19일(토) 오후 7시 30분
3월 20일(일) 오후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35,000원 / S석 30,000원 / A석 25,000원
문의 _ 메인기획 (883-0050, www.사랑은비를타고.com)

인 형 뮤 지 켈 짱구와 삐어로 마술사

'짱구와 삐어로 마술사'는 장난삼아 거짓말을 일삼는 어린이들에게 서양 작품인 '양치기 소년'을 비유하여 정직함을 일깨워 주는 인형뮤지컬이다. 어린이들이 친숙해 질 수 있는 짱구를 테마로 삐어로 마술사를 등장시켜 볼거리와 호기심을 자극하며 공연을 재미있게 이끌어 갈 것이다.

일시 _ 3월 29일(화) ~ 30일(수)
오전 10시 20분 · 11시 20분 · 오후 3시
장소 _ 여성의광장 (동춘동)
티켓 _ 10,000원 (할인 5,000원)
문의 _ 꼬마세상 (572-4281)



제 94회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Libera Me

나를 구원하소서



뉴욕 카네기홀 연주를 비롯한 미국 4개 도시 초청 순회연주를 기념하는 인천 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서울LG아트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핀란드의 천재작곡가 I.Lidholm 의 <Libera Me> 등 경건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성가곡 부터 한국 민요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메나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선곡이 3월의 봄바람에 실려 온다.

공연내용

- I. Chichester Psalms – Leonard Bernstein
 1. Maestoso Ma Energico
 2. Andante Con Moto Ma Tranquillo
 3. Prelude Sostenuto Molto Adagio
- II. 메나리 – 우효원
 1. 메나리
 2. 아리
 3. 아리랑
- III. Modern Music
 1. Libera Me(나를 구원하소서) – Ingvar Lidholm
 2. O Nata Lux (빛으로 오신 주님)– Morten Lauridsen
- IV. Latin 성가 – 박지훈
 1. Duo Seraphim (두 천사)
 2. Cantate Domino (하나님을 찬양하라)
 3. Nigra Sum (나는 흑인)
 4. Jubilate Deo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인천 { **일시** : 3월 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서울 { **일시** : 3월 15일(화) 오후 8시
장소 : 서울 LG아트센터
티켓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_ 인천시립합창단 (420-2784)



이달의 展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전

1일~3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독도 풍경사진 및 자료전

1일~1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인천, 어제와 오늘〉사진전

2일~9일 계양문화회관 전시실

고가구 전시

4일~1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홍윤표 초대전

4일~17일 갤러리 진

오석환 80수 회고전

4일~10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인천 난 명품전

11일~1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환경미술협회전

18일~2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이철희개인전

18일~2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물의 날’ 기획전

18일~31일 갤러리 진

박민수 서각초대전

19일~4월 7일 연수갤러리(연수구의회 1층)

미추홀 한국 서예협회전

25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미객 작품발표회

25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한묵회 산수화전

25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긴 겨울 딛고 새봄 열 때까지

부 평 문 화 사 랑 방 공 연

현 악 4 중 주

콰르텟엑스 픽쳐쇼

3월 4일(금) 오후 7시 / 5,000원 (청소년 3,000원)

시네마천국 풀버전을 비롯해 캐치미 이프 유캔, 러브어페어, 천공의 성 라퓨타 등 콰르텟엑스가 직접 편곡한 레파토리를 선보인다. 특히 편곡의 귀재로도 불리는 조운범의 최고 걸작인 〈바흐의 사콘느〉, 〈토카타와 푸가〉의 현악사중주 버전이 공개된다.

인 형 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

3월 23일(수) ~ 24일(목) 오전 11시, 오후 1시 / 3,000원

셸 실버스타인의 대표적인 작품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는 나무의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나무 한 그루는 매일같이 사랑하는 소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 하지만 소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지는데…

뮤 지 켈 마녀 워니

3월 30일(수) ~ 31일(목) 오전 11시, 오후 1시 / 3,000원

2004년 춘천인형극제에 초청되어 많은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 뮤지컬 오픈 인형극〈마녀 워니〉는 열려진 무대에서 입체적인 동작을 선보이며 뮤지컬 인형극의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한다.



공연문의 및 예약 _ 부평문화사랑방 (505-5995)

일	토	금	목	수	화	일
6 익크 〈카츄사의 노래〉 오후 3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만, 4만 818-5665	5 기아남판소리연주회 오후 6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02-2889-8497 익크 〈카츄사의 노래〉 오후 3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만, 4만 818-5665	4 현악4중주 〈콰르텟엑스 픽쳐쇼〉 오후 7시 부평문화사랑방 5천 505-5995 바이브무용단 〈나무가 부르는 노래〉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만, 5천 / 528-6069	3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만, 7천, 5천 / 420-2785 바이브무용단 〈나무가 부르는 노래〉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만, 5천 / 528-6069	2 출인행극 오후 6시 인천학생교목문화회관 사리제홀 무료 760-3447	1 대건OB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011-371-3466	7 교목연극 〈지사 신형성〉(~24 일요일제외) 오전 11시, 오후 2시 계양문화회관 5천, 3천 551-6602
13 어린이마당극 〈공작과 팔쥐엄마〉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만, 8천 / 031-973-4608	12 이기찬, 춘자, 프리스타일 콘서트 오후 4시, 7시30분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4만, 3만 / 565-4076 어린이마당극 〈공작과 팔쥐엄마〉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만, 8천 / 031-973-4608	11 광성이가개OB남성합창단 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422-1990	10 광성이가개OB남성합창단 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422-1990	9 바리톤 최충배 귀국독창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011-9349-7546	8 바리톤 최충배 귀국독창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011-9349-7546	14 교목연극 〈지사 신형성〉(~24 일요일제외) 오전 11시, 오후 2시 계양문화회관 5천, 3천 551-6602
20 청소녀 팝콘콘서트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만, 5천 514-8722	19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3만5천, 3만, 2만5천 / 883-0050 합송기 라이브콘서트 오후 7시30분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4만, 3천 / 011-318-5708 아카펠라 라이브쇼 오후 4시, 7시 / 부평문화사랑방 / 3천 / 505-5995	18 국립합창단 〈봄의 노래〉 오후 7시 인천학생교목문화회관 사리제홀 1만, 5천 / 760-3447 뮤지컬인형극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19)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만, 7천 / 839-4394	17 기독교뮤지컬 〈용고집전〉 오후 6시 인천학생교목문화회관 사리제홀 무료 760-3447	16 가족뮤지컬 〈용고집전〉 오후 6시 인천학생교목문화회관 사리제홀 무료 760-3447	15 오성근 기타독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만, 5천 연극 〈행복한 가족〉(~27) 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 오후 3시, 6시 화산극장 1만5천, 1만 / 866-3993	21 교목연극 〈지사 신형성〉(~24 일요일제외) 오전 11시, 오후 2시 계양문화회관 5천, 3천 551-6602
27 뱅크, 포지션, 최재훈 콘서트 오후 3시, 6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만, 4만 1566-6551 어린이뮤지컬 〈에릭왕자와 인어공주〉 오후 2시, 4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 02-2236-1034	26 비화요비, 바이브, KCM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만, 4만 / 1566-6551 어린이뮤지컬 〈에릭왕자와 인어공주〉 오후 2시, 4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 02-2236-1034	25 신비한 마술여행 오전 10시, 11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천 1566-9921 인형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전 11시, 오후 1시 부평문화사랑방 3천 / 505-5995	24 신비한 마술여행 오전 10시, 11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천 1566-9921 인형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전 11시, 오후 1시 부평문화사랑방 3천 / 505-5995	23 출인행극 오후 6시 / 인천학생교목문화회관 사리제홀 / 무료 / 760-3447 인형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 평일 / 3천 / 505-5995 인형뮤지컬 〈평구와 빼애로 마술사〉 오전 10시20분 · 11시20분, 오후 3시 / 7천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016-774-0014	22 브니엘 남성단합창단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 011-494-2360 인형뮤지컬 〈평구와 빼애로 마술사〉 오전 10시20분 · 11시20분, 오후 3시 / 7천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016-774-0014	28 교목연극 〈지사 신형성〉(~24 일요일제외) 오전 11시, 오후 2시 계양문화회관 5천, 3천 551-6602
2 시립무용단 제54회 정기공연 및 창단공연 〈리틀 & 댄스〉 오후 4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20-2788	1 시립무용단 제54회 정기공연 및 창단공연 〈리틀 & 댄스〉 오후 4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20-2788	31 뮤지컬 〈울부짖는 강아지 댄스〉(~4.3) 평일 오전 10시20분, 11시30분 주말 오후 2시, 4시 계양문화회관 551-6602	30 시립무용단 출마당 홀마당 〈젊은 전통춤 작가 6인전〉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천, 3천 / 420-2788 뮤지컬 〈마녀 워니〉 오전 11시, 오후 1시 부평문화사랑방 3천 / 505-5995	29 브니엘 남성단합창단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 011-494-2360 인형뮤지컬 〈평구와 빼애로 마술사〉(~30) 오전 10시20분 · 11시20분, 오후 3시 / 1만 여성문화관 / 016-774-0014	28 브니엘 남성단합창단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 011-494-2360 인형뮤지컬 〈평구와 빼애로 마술사〉(~30) 오전 10시20분 · 11시20분, 오후 3시 / 1만 여성문화관 / 016-774-0014	3 뮤지컬 〈리틀 & 댄스〉 오후 4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20-2788

더 이상 ‘추억’ 이라 부르지 말라

첨단산업도시, 동북아관문도시를 지향하며 변신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우리시는

지역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기존도심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침체된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도시통합과 도시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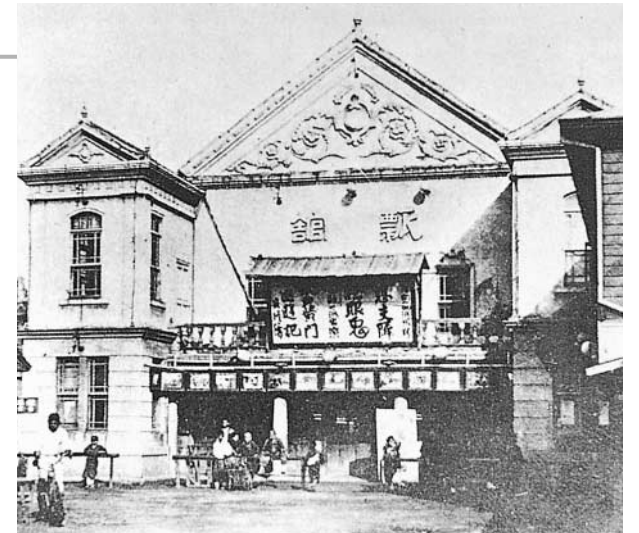
도시에 ‘젊음’ 을 불어넣을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수봉공원 정상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

100년전 개항기 근대건축물 복원

개항 초기 역사의 애환을 간직한 중구 자유공원 일대. 근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우리시의 관광 상품성을 높이고 도심특성에 맞는 활성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계획에 의하면 100여년 전 구한말 개항기에 세워졌다 없어진 인천의 옛 근대 건축물이 복원된다. 19세기 역사 유적들을 2009년까지 복원해 근대 개항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등으로 활용한다. 복원 대상 건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원인 중구 송학동 자유공원 주변에 있던 일본·청나라·영국·러시아 영사관, 인천세관, 세창양행 사택, 존스톤 별장, 인천관측소, 인천 최초의 활동사진 전문 극장인 표관(瓢館) 등 10여개이다. 이와 함께 개항 당시의 청나라와 일본 조계지(租界地·외국 정부의 행정권과 경찰권이 행사되던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및 한국인촌도 축소해 복원된다. 이밖에 가로벽화 사업, 골목전시관 사업 등 새로운 거리문화, 노천문화를 창출, 색다른 도시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방침이다.



옛 상설극장 표관

월미관광특구 특화 개발

월미관광특구에 대해 보행권 확보, 월미관광특구 순환버스 도입, 관광교통수단 도입 등으로 접근성과 주변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책과 휴식,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바다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휴식·산책 지원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인근 공유수면에 ‘월미도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월미역사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 최초의 군함이나 외국 열강의 군함을 한데 모은 선박박물관, 근대식 최초 등대인 ‘팔미도 등대’를 복원해 박물관도 세울 예정이다.

연안부두의 경우 연안부두 해양광장 내에 휴식·산책 지원시설을 보완하고, 연안부두 매립의 역사와 중국연안도시 등을 소개하는 연안부두 홍보관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옹진도서홍보관을 만들어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인천의 섬 이야기’를 특색있게 꾸민다는 구상이다.



인천역 주변 정비사업

인천역은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등을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활용여부에 따라 새로운 상권형성 및 기존도심 활성화는 물론 월미관광특구 위상 제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수인선개통에 맞춰 인천역 일대를 주거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역사 개발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인천역을 오는 2008년까지 지하 2층·지상 12층·연면적 6,500평 규모의 복합역사로 개발, 객실 300개의 호텔과 역무시설, 비즈니스룸, 회의실, 미디어센터, 공연장, 스포츠시설, 쇼핑몰 등이 들어서고 역사 주변지역 7만 1,000평도 복합역사와 연계해 종합 관광타운으로 개발한다.



만석부두 일대 ‘해양테마파크’ 조성

접안시설이 낡고 협소해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동구 만석동 만석부두 일대에 2014년까지 친수공간과 위락시설을 두루 갖춘 ‘해양테마파크’가 조성된다. 도심형 친수공간 거점단지로 개발될 이곳은 한국유리공장 부지를 비롯한 만석동 일원 9만909평으로 올해 1단계로 토지소유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뒤 2006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립 및 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이어 오는 2010년에 착공해 2014년 준공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해양테마파크 내 2만6,530평에 주차장·종합안내소·관리사무소 등 공공편익시설을, 4,524평에는 관광호텔을, 1만1,696평에는 해산물센터, 4만 8,157평에는 대형위락시설 등 휴양·문화시설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로는 만석우회고가도로를 이용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에 연결하고 한국유리공장 이전지에 만석IC를 신설키로 했다. 또 중봉로(화수 4거리 부근) 확정예정 도로와 송림6동 재개발 진입도로, 신흥동 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망을 연결할 예정이다.



송의동 인천종합운동장 주변

남구 송의동 종합운동장과 야구장은 각각 1920년, 1964년에 세워져 우리시 체육의 메카이자 지역중심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설이 너무 낡고 주변 지역이 쇠락하면서 옛 영화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아파트와 생활체육단지 등으로 바뀐 2007년경에는 달리 바라 봐야 할 것이다. 기존도심 재개발 차원에서 이들 두 시설과 주변 상가 등 이 일대 2만6,400여평이 2007년까지 재정비된다. 우리시는 공설운동장과 야구장의 스탠드와 담장을 헐어낸 뒤 천연잔디가 깔리고 2만석의 좌석을 갖춘 담장이 없는 축구장과 개방형 야구장, 녹지공간과 스포츠 종합전문상가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생활체육공원으로 꾸밀 계획이다. 소요 사업비는 약 800억원 정도로 이곳 한쪽에 700가구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2006년쯤 분양해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이 들어설 체육시설과 함께 경인전철 도원역과의 우수한 접근성 때문에 주거공간으로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구 송의동과 중구 도원동 일대의 상권이 되살아나고 이는 주변 동인천역 일대 상권에까지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시가지 정비사업

도시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동구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면모를 바꾸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동안 송림5동, 화수1동, 화수2동, 만석1동, 화수동 등 6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송림구역(송현동 1~11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지구(송림4동 8~375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앞두고 있다.

송림구역은 공장과 주택이 뒤섞여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대표되는 곳으로 향후 2014년까지 자연친화적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지구(1만5,755평), 송림동 45~1 일원 동산학교 뒤편(2만11평) 지역도 3, 4년내에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이밖에 송림6동 42~215번지 1만6,912평(송림3구역)과 금창동 116~1번지 2만9,702평(금송구역) 등에 대해서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친화적 도시를 위해 도시녹화사업, 송현배수지 공원화 사업, 송현 근린공원 수목보완 식재, 돌산어린이 공원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어린이 공원 조성 등도 병행한다.

한편 동인천역 주변의 중심성 회복을 위해 북광장이 새로 마련되고 남광장은 확장된다. 이를 통해 시민 휴식공간 확충은 물론 공연, 문화 이벤트 공간을 제공하고 놀이방 등 보육기능을 갖춘 여성프라자도 유치된다. 자유시장과 중앙시장 일대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목적 복합기능의 상업시설 공간으로의 활용과 전통특화상품을 이용한 관광명소 등 두 축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남구 수봉공원 일대 등 도심의 대표적 낙후지역 역시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고도관리지구에 묶여 개발이 부진했던 수봉공원 일대와 학익시장, 주안역 일대 등 3곳의 건물 층수제한과 용도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시는 모두 7억원을 들여 3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내년말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은 2층 또는 3층, 다른 지역은 4층 이하의 건물을 짓도록 고도가 규제된 17만4,000평 규모의 수봉공원 일대는 전 지역이 모두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이 완화된다.

또 학익시장 일대 5만1,000평의 경우 개발촉진 차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2011년 도시기본계획’ 상의 준주거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를 변경키로 했다. 주안역 일대 2만5,000평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 이에 따라 주안역 일대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고 완화지역의 상권 개발과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양제철화학 등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하대학교, 주거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용현학익지구의 경우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잦은 곳이다. 반면 기성시가지와 송도지구를 잇는 연계지역으로서 광역교통 및 수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형성 등 남구의 지역 거점으로서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우리시는 이 지역에 대해 주거일변도의 기능 전환보다는 문화, 업무, 서비스업,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의 재개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1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지역 2 도원역 주변 3 동인천역 주변

굿인천 굿뉴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우리시는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남구 문학동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키로 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수관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천의 전통음악과 무용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과 연습실, 전시판매실 등이 들어선다. 무형문화재전수관은 남구 문학동 349번지 1,331평의 부지에 2008년까지 139억원을 들여 만들어 질 계획이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32

금융기관장 대상 ‘Buy Incheon’ 홍보



우리시는 지난 2월 4일 오전 11시 남동구에 위치한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등 인천지역 금융기관장 17명을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Buy Incheon에 대한 세일즈 활동에 나섰다. 이날 안상수 인천시장은 올해 시정방향과 투자사업 전략,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에 대해 현황도와 영상물을 이용해 직접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에 대해 상호 정보공유 등 다각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제2금융권 그리고 국내는 물론 외국계 은행장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양한 채널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824

각종 문화행사 정보 한눈에

우리시는 시 산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 및 문화행사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시 홈페이지에 『교육정보』, 『문화새소식』란을 개설해 각 실·과 및 사업소, 군·구의 교육 및 문화행사정보를 소관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각종 행정간행물 및 통계, 환경자료도 책장을 넘기는 방식의 e-book형태로 서비스 된다.

문의 _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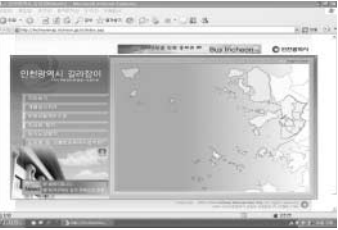
도심과 강화·영흥도 연결 시내버스 운행



우리시 도심과 강화도, 영흥도를 잇는 시내버스가 오는 5월부터 운행된다. 우리시는 강화도, 영흥도 주민들과 이들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빠르면 오는 5월중 섬과 인천 도심을 오가는 시내버스 3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화-인천 노선은 ‘인천터미널 - 경인전철 동암역 - 공촌4거리 - 초지대교 - 강화터미널 - 강화군청’과 ‘인천지하철 계산역 - 계양구청 - 공촌4거리 - 초지대교 - 초지진 - 마니산’ 노선 등 2개다. 영흥도 노선은 ‘웅진군청 - 경인전철 제물포역 - 석바위 - 인천시청 - 남동구청 - 시화방조제 - 선재도 - 영흥도’ 구간이다. ‘인천터미널 - 강화군청’ 노선의 경우 버스 6대가 50분 간격으로 58.1km를 20회, ‘계산역 - 마니산’ 노선은 4대가 45분 간격으로 41.8km를 23회 각각 오가며, ‘영흥도 - 웅진군청’ 노선은 3대가 75분 간격으로 55.2km를 12회 운행한다. 요금은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어른 1,500원, 중·고생 1,100원, 초등생 750원이며 현금을 낼 경우 구분 없이 2천원이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896

도서지역 토지위치정보 제공



인터넷을 통해 강화·웅진군 및 영종지역에 대한 토지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우리시는 현재 ‘인천광역시 길라잡이’ (<http://incheonmap.incheon.go.kr>)를 통해 이들 도서지역 토지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8개 구(區)만 제공되던 인터넷 지도 서비스도 전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인천광역시 길라잡이’에서는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토지정보와 상호, 업종 등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상호, 전화번호 등 시민이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 광고효과를 통한 매출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_ 시 지적과 440-3475

중소기업 자금 2천650억 지원

우리시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희망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자금은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과 시설자금 650억원 등 총 2천650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지역 제조업이나 제조 관련 서비스업, 시내버스 운송사업, 자동차 정비업 등이며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4억원이고 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은 7억원까지다. 지원조건은 3년 만기에 연리 5.9~7.22%이고 시가 이중 2.5%를 지원해 실제 금리는 3.4~4.72%이다. 중기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자금인 시설자금은 벤처 창업이나 공장 구입 등을 계획중인 지역내 제조업으로 지원 규모는 기업당 1억~50억원이다. 조건은 38년 만기에 연리 3.0~3.68%이다.

문의 _ 시 산업노사지원과 440-2874

인천 아파트 분양시장을 주목하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 분양이 예정된 단지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총 46개 단지에 이른다. 총 3만4,640가구가 지어져 2만4,440가구가 일반에게 분양될 예정으로 분양풍년이다. 올해 분양이 예정된 단지 가운데 500가구가 넘는 단지는 24곳으로 전체적으로 큰 단지규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1천가구가 넘는 대단지는 총 11곳으로 이 가운데 초대형 재건축 물량이 눈에 띈다. 3,160가구의 주안주공재건축, 2,432가구의 간석주공재건축, 2,276가구의 가좌주공1단지재건축이 대표적인 단지로 일반분양분도 많아 관심이 높다. 이밖에 인천 서남부의 대표적인 택지지구인 송도신도시와 논현, 학익지구에 들어서는 물량 역시 각각 2천가구 이상이 분양을 준비중이다. 인천에 올해 계획된 분양물량 가운데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와 그 인근에 들어서는 물량은 23개 단지 1만6,139가구로 전체의 66%에 이른다.

올해 분양물량 가운데 먼저 오는 3월 초 인천 1차 동시분양 공급물량에 관심이 쏠린다. 한신공영은 서구 가좌동 가좌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2,276가구의 대단지 규모를 선보인다. 일반분양은 24~52평형 646가구가 공급된다. 포림산업과 벽산건설은 남구 주안동 주안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총 3,160가구 중 27~47평형 78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 1차 동시분양을 준비중인 삼산지구 인근 (주)엠코(708가구), 논현2지구에 들어서는 한화건설(982가구), 학익지구 포림산업(2,090가구) 등도 주목할 만한 단지다. 4월 중으로 분양이 계획된 단지 가운데에는 LG건설과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간석주공재건축아파트(총 2,432가구 중 332가구 분양), 송도신도시 포스코건설(주상복합 1,596가구, 오피스텔 620가구) 등이 유망하다. 이밖에 5월에 공급예정인 검단지구 대림산업(1,003가구), 9월 분양예정인 주안동 한신공영(총 1,522가구 중 270가구 분양) 등도 관심이 높은 단지다.

제공 _ 노컷뉴스 (www.cbs.co.kr)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가시화

부평지역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부평문화예술회관이 백운공원(부평구 십정동 186번지 현 송학사부지)내에 오는 12월중 착공될 전망이다. 우리시는 부지소유자인 군부대와 대금분할납부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올 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 군부대가 이전하면 12월중 바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13,474㎡, 연면적 15,800㎡로 총 491억원이 투입될 부평문화예술회관은 800여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250석 규모의 소공연장, 전시장 등을 갖추게 되며 인근 공원과 함께 부평지역의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15

2005주택건설종합계획 확정



우리시가 ‘2005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올 공공부문에서 6,038호, 민간부문에서 18,338호 등 총 24,376호를 건설, 주택보급률 95%를 목표로 잡았다. 또한 기존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3개 지구 지정과, 29개 지구 7,272호에 대한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도 강화군 및 용진군을 중심으로 110세대에 대해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36억8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문의 _ 시 주택건축과 440-3812

학익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

남항 제2준설토 투기장내 건설예정인 학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오는 5월 시작된다. 학익하수처리장은 중구 항동3가 67번지(남항 제2준설토 투기장) 186,000㎡내에 처리규모 125천㎥/일, 차집관거 연장 12.07Km, 고도처리공법으로 총사업비 2,088억원이 소요되며 2008년 5월 준공예정이다. 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하여 외부 악취 발생 방지 등 친환경적으로 건설되며 지역 문화공간이 될 물홍보관도 건립된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과 연계해 용현천 하천정비도 추진할 계획으로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하천하수와 440-3071

6월부터 시청 주차장 유료화



그동안 일반시민 및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왔던 우리시청사 내 부설 주차장이 오는 6월부터 전면 유료화된다. 우리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청 내 주차장을 유료화할 수 있는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5월까지 유료화 시설 설치를 마치는 대로 유료화할 계획이다. 규정에 따르면 주차 요금은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받는다. 단 공휴일과 토요일 휴무일에는 휴장하며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동안 600원의 기본요금을 토대로 10분초과시 마다 300원을 징수하도록 했으며, 전일 주차권은 6천원, 월 정기 주차권은 6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각종 법률에 의해 주차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장애인 차량과 긴급 차량, 공무 차량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의 _ 시 총무과 440-2529

수돗물 PET병 무상 공급

정수장에서 생산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PET병에 담아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남동구 장수동에 소재한 남동정수사업소는 우리시 전역(도서제역 제외)을 대상으로 공공목적의 모든 분야에 수돗물 PET병을 무상 제공한다. 생산제품별로 350ml는 각종 회의 및 간담회용, 500ml는 각종 행사 및 체육행사용, 1.8ℓ는 수해지역 지원용으로 사용한다. 수돗물 PET병을 제공받으려면 남동정수사업소와 최소 5일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8709-291/4, 남동정수사업소 홍보팀 8709-467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첫삽’



연수구 동막역에서 송도신도시를 잇는 6.54Km 구간에 대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의 기공식이 지난 2월 18일 11시 송도신도시 3정거장 부지에서

열렸다. 이로써 2009상반기까지 우리시는 모두 7천 45억원을 들여 동막역에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지하철 송도 연장구간 건설사업의 첫 삽을 떴다. 이 구간엔 6개의 역이 들어서며 각 역사의 플랫폼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연장구간은 약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2009년 10월경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굴현역과 인천공항철도 계양역 연장선도 인천공항철도 개통에 맞춰 2007년 3월경 완공된다. 계양역은 인천지하철과 인천공항철도의 환승역이 된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지하철은 22개 역 24.6Km에서 29개 역 32.34Km로 늘어나게 된다.

문의 _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451-2736

인천항만공사 조직규모 확정

오는 7월 출범하게 되는 인천항만공사의 윤곽이 드러났다. 인천항만공사의 조직규모는 출범 초기 가능한 한 소수정에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3본부(경영기획, 항만운영, 항만 건설) 1처(갑문운영) 13팀의 직제와 임원을 포함하여 총 123명(갑문위탁인원 48명포함)의 직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 직원의 채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우수인력 선발을 위해 전 직원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_ 시 항만공항지원과 440-3375

제1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승숙)는 올 처음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7일 개최된 1차 본회의에서는 안상수 시장과 나근형 교육감으로부터 2005년도 시정보고를 받았으며, 이어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및 실·국, 기관별 업무보고,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처리하고 2월 14일 폐회됐다.

남북교류촉진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 추연어)는 지난 1월 27일 시청영상회의실에서 박승숙 시의회의장, 김필우 산업위원장, 시의원, 시민단체, 시 관계

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이날 특위의 월별 운영계획 보고와 시의 남북교류관련 사업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남북교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남북교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물론 경제, 체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데 추진단체가 분리돼 있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는 단일창구로 대북지원단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필우 산업위원장은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무분별하고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퍼주기식보다는 양쪽이 이익을 얻는 방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상공회의소 박동석 상근부회장은 “개성공단 진출에 박차를 가하되 교류사업의 상대성에 따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인천경찰청 김송원 사무국장은 “개성공단 개발에 따라 육로와 더불어 해상수송로를 활용하는 물류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 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활동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_ 시의회 공보팀 (440-6054)

중구 2004년 지방재정운영 우수단체 선정

중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04년도 재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재정분석을 실시, 우수기관을 포상하는 이번 행사에서 중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월말 국무총리 기관포상을 받은 것. 이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차이나타운 조성, 한중 문화관 건립, 개항기 근대건축물 거리 조성 등 역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 지역개발과 문화 및 관광을 하나로 묶어 벨트화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문의 _ 중구청 760-7114

남구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



남구는 민원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구청 기획감사실 내에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인·허가 등 민원처리

리시 대가 요구행위,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행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기타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신고는 남구청 민원부조리신고창구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880-4065), FAX(880-4851), 인터넷홈페이지(www.namgu.incheon.kr)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문의 _ 남구청 887-1011



남동구 인천대공원~시화방조제 구간 자전거 전용 도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에서 경기도 시흥시 시화방조제를 잇는 28km 길이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2007년 생길 전망이다. 남동구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시흥시와 협의중이다. 구는 우선 올해 담방마을 일대 1.85km에 도로를 놓을 예정이며 시흥시는 소래대교~옥구공원 사이 3.7km 구간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기로 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 옥구공원~시화방조제 입구 사이 3km는 수자원공사가 추진중인 도로 확장 계획에 맞춰 자전거 도로를 놓기로 했다.

문의 _ 남동구청 466-3811

동구 송림지하보도 마무리공사 추진

그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왔던 송림지하보도에 대한 마무리공사가 추진된다.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우려 등 민원이 잦았던 송림지하보도에 대해 시의 재난관리기금 34억원을 들여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거쳐 곧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준공한다. 준공 이후 동구청이 관리권을 행사한다. 송림지하도는 길이 214.8m, 폭 12m, 높이 3.7m 규모다.

문의 _ 동구청 761-0151

부평구 벽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평구는 관내 담장 일대에 벽화를 그려 넣는 '벽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구는 올 10월까지 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산곡3동 화랑농장 주변에 위치한 주택과

학교, 종교시설, 노후 건물의 벽면 등 총 300㎡ 면적에 다양한 색상과 문양의 벽화를 그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 추천과 희망자 지원을 통해 '화랑농장벽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이달부터 벽화를 원하는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구는 벽화조성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활기찬 지역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_ 부평구청 527-5911

강화군 지역균형발전 대상사업 조기집행

강화군은 올해 특수지역개발사업중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41건에 총사업비 93억9천300만원의 사업을 선정, 주민의 생산기반,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하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점경지역지원사업으로 강화읍 관청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에 6억9천만원, 농·어촌 기간도로망 확충과 연리지구 농로포장 등 6개소 18억2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교동·삼산·서도 3개면에 삼산면 매음3리 복지회관 1개소 2억3천만원, 간이상수도 1개소 1억원,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으로 15개소 35억9천만원(서도면 주문2리 농로 확·포장공사 5억원) 등이다. 또한, 오지 종합개발사업으로 화도면 일원에 3억9천만원을 투입해 소하천 정비 및 기간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점경·오지지역에 사회기반, 문화복지시설 등의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의 _ 강화군청 934-2183

송도신도시 CI '퓨처밴드' 선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는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의 심볼 및 로고 공모전' 시상식과 CI(Corporate Identity) 선포식을 가졌다. NSC는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첨단산업 도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를 일반인들 뿐 아니라 차세대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상을 차지한 이화여대 팀에게는 2천만원의 상금이, 학교에는 1억2천만원의 장학금과 상패가 전달됐다. 대상 작품으로 선정된 이화여대팀의 '퓨처밴드(Future Band)'는 앞으로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의 CI로 활용될 예정이다. '퓨처밴드'는 가로와 세로가 교차되는 선을 시각화시키며 국제 교류가 활발한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의 경제허브 기능과 네트워크 도시의 조화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송도신도시 문화산업대학원 유치 박차

송도신도시에 문화산업대학원 설립이 추진된다. 우리시는 문화산업을 이끌 차세대 전문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산업대학원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학교 예정부지는 송도신도시 5·7공구 DEC(Digital Entertainment Cluster) 안이다. 문화산업대학원 설립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며, 모두 50~100명의 학생을 선발해 오는 2007년 개교 예정이다. 이곳은 문화관련 인력양성과 문화기술 연구개발, 문화콘텐츠 창작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시는 송도 DEC가 경제자유구역안에 있기 때문에 IT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공항과 항만이 인접한 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우리시는 이밖에 송도신도시 5·7공구에 미국내 유명 예술대학교 분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대상을 물색중이며 유치대상은 뉴 스쿨 유니버시티와 캘리포니아 아트, 퍼슨 스쿨 오프 디자인, 아트센터 디자인, 시카고 아트 등 6개 학교다.

경제자유구역 광고물 제한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육외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돼 광고물 제한이 강화되고 면적총량제가 도입되는 등 엄격한 광고물 관리방식이 도입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육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 광고물 종류별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한편 광고물의 총면적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면적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우선 광고물의 종류별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으로 문자 또는 숫자의 표시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4층 이상 최상단의 광고물은 입체형으로 건물명 및 건물을 상징하는 도형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광고물은 세로형 간판과 애드벌룬, 벽보, 전단 등으로 규정했으며 현수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한편 건물주 또는 건물주와 업소의 합의에 따라 자율규정을 정하는 경우 표시방법 완화와 임시광고물 등의 허용 및 임시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건축규제 대폭 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건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국제도시에 걸맞은 초고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신축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종전보다 50% 추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새 시행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경우 종전 1천500%의 용적률이 허용됐으나 올해부터 2천250%까지 허용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골프장 등 체육시설 내에 주택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레저와 주거가 복합된 선진국형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급부상하는 동북아 시장에 대처해야



글 _ 김원재 교수
(인천전문대학)

인천은 그 동안 물류에 관한 서울의 관문역할로 만족하는 단계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인천이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관성적이고 종속적인 과거의 물류 정책에 대한 철저한 비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약진은 결코 우연이 아닌 시대적 흐름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나 경제적 잠재력은 그 어느 때 보다 큰 만큼, 이에 대한 중장기적 물류정책 수립과 향후 대비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에 대한 정보나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면 그리 긍정적인 답을 할 처지가 못 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성 하에 인천의 물류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물류산업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 무역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수위를 차지해온 미국과의 교역량은 점차 감소세를 보인 반면,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가 두드러져 결국 지난 2003년도에 이르러 미국을 제치고 수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최근 미국 달러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대미무역 기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변수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에 기인한 재정적자폭 확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폭은 2조 달러에서 4조 달러를 넘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잘못하면 달러화의 대폭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저렴한 생산 요소가격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없는 한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 달러기조로 된 세계통화 질서조차도 곧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자율 및 중국 원화가치 등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 추세를 당분간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물류정책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국의 산업구조와 물류인프라 구조변화에 관한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러시아이다. 비록 현재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시베리아 지역에 부존해 있는 엄청난 각종 천연자원을 고려해 볼 때 차세대에는 러시아가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다. 최근 대북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원선과 경의선의 복원연결도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인천으로서는 개성공단과 경의선의 활성화를 지역경제 발전에 심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조성중인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도 다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천과 지척에 있고 동북아 경제시대의 핵심국인 중국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은 개발방향이 아쉽다. 미국자본 유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자본 유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중국의 참여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싶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물류문제는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세계의 산업구조 변화를 축약하면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전자산업 시대에 들어서며 축소지향적 산업철학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져 과거 물류의 중추에 있던 벌크화물의 대량 해운수송체계에서 전자부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량 화물의 항공운송체제로 이동해 가는 추세를 주목해야 하겠다. 그 결과 2004년의 인천공항 물류처리 실적이 부산항의 실적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인천항에 대한 지방공사설립과 같은 맥락에서 인천국제공항 운영과정에서 인천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역시 중앙정부에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Johns Hopkins University

기다려라 심인정이 간다!



지난 2월 12일, 유학 준비로 한창 바쁜 심인정 학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인상부터 환한 미소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인정 학생은 올해 인천과학고 3학년을 졸업하고 9월이면 세계 최고의 의대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에 입학하게 될 예비 의대생입니다. 그가 국비 장학생이 된 계기는 2003년 7월 스웨덴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물리 탐구 토론회'에서 1위에 입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장학생이 되지 못했더라면 꿈에 그리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입학허가서를 받고도 가지 못할 뻔 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특목고 준비를 하는 다른 중학생들과는 달리 그는 중3 가을에 '인천시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해 과학고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학과 책읽기를 좋아하고 국제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인정학생은 과학고에 진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1년 반 안에 끝내야 하는 빠른 수업진행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인정학생을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었던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픈 호기심, 꼭 이루어내겠다는 굳은 목표 그리고 언제나 뒤에서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학교 주변의 쾌적한 자연환경,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친구들이 힘든 학교생활을 이겨내게 해준 진짜 원동력이라며 학교 자랑도 잊지 않았습니

다. 9월 입학을 앞두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입학하기 2~3달 전에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내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의 모습에 타국생활이 힘들지는 않을까 저 역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대학이 있는데 굳이 유학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을 때, 자신이 희망하는 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분야의 국내 기반이 많이 미약해 기회의 폭이 넓은 해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 인정학생의 확신 있는 대답에 제 걱정도 말끔히 지워졌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고, 게다가 미국 최고의 의대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그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공부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부 노하우를 살짝 물어보았는데, 그 대답은 역시나 목표 설정, 계획 세우기,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당연한 진리를 꾸준히 지켜온 결과로 지금의 그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들려줄 한마디를 부탁했는데, '진정한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처음 이 말을 TV프로그램에 나온 이승엽 선수에게 들었는데, 그 때는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건 승자의 오만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내가 되고나서야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노력과 열정은 반드시 성공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세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 거예요. 파이팅!"

글 _ 이수진 (석정여고 2학년, 제5기 청소년웹진 MOO 학생기자)

항일 에너지 뜨겁게 타올라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1919년 3월 6일 정오-. 인천 배다리 장터에는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며 절규하는 태극기의 물결이 노도처럼 넘쳐흘렀다. 천 지개벽과 같은 인천의 첫 ‘만세 소리’에 놀란 부민(府民)들은 너나없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뛰어나와 배다리 장터는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인천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창구 역할을 했던 개항장이었다. 일제는 개항 직후부터 그 같은 지정학적 조건에 눈독을 들여 조계지(租界地)를 설치한다, 영사관을 연다, 은행을 들여온다, 축항(築港·독)을 만든다...며 인천을 철저하게 식민 통치의 교두보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경찰 병력에 군인들 까지 주둔시켜 치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인천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경계 태세가 삼엄했던 것이다. 각처에서 왕성하게 발흥했던 의병이 유독 인천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원인의 하나도 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같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인천사람들이 끊임없이 외세에 저항하면서 독립 운동을 펼쳐왔다는 것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사실이다. 만세의 첫 깃발을 떨쳐 올린 이들은 인천공립보통학교(이하 인보)와 인천공립 상업학교(이하 인상) 학생들이었다. 인보 3, 4학년생들은 3월 6일 정오에 학교를 출발, 배다리 철로 너머 인상 학생들과 합류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했고, 이어 동맹 휴교에 돌입했다. 이들은 다음 날 다시 모여 만세를 부르다가 대거 인천경찰서에 연행됐다. 후에 주동자였던 인보 4년생 김명진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했고, 박철준, 이만용은 태(笞) 90대, 손창신은 연소자라 풀려났다.

8일, 인천부 전역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됐다. 특히 노동자의 분발을 촉구하는 격문도 뿌려졌다. 그 이튿날 오후 5시 30분경, 기독교 신자, 청년, 학생 등 3백여 명이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 모여 만세를 부르다가 왜경에 의해 강제 해산 당했고, 8시 30분경에는 부내 동쪽 경인가도에서 부민 5백여 명이 만세를 부르다가 경찰과 충돌해 주동자 여러명이 체포됐으나 만세 운동의 열기는 점점 고조되어 갔다.

12일, 강화보통학교 3, 4학년생들이 칠판에 태극기를 그려놓고 만세를 부른 후 거리로 나서려하자 교직원들이 이를 저지했고, 이튿날 다시 1백여 명이 모여 만세를 불러 경찰에 연행됐다.

17일 오전 9시 30분, 인상 학생 2백80여 명이 다시 학교 강당에 모여 만세를 부르고 거리로 나섰다. 주동자 17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일본인 교장은 직권으로 휴교 조치를 단행했다. 주동자들은 후에 3개월 형을 받았다.

18일 오후 2시, 강화읍내 장터에서 유희철, 황윤실, 장동원, 장명순, 조상문, 유봉진, 고익진 등이 군중에 앞장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대의 숫자는 6천여 명에 달했다.

19일 길상면 온수리에서 천도교인 수백 명의 시위를 시작으로 만세 소리는 불은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화도면 등으로 퍼져나갔다.

23일에는 용유면 거주 조명원, 조종서, 최봉학, 문무현 등이 혈성단을 조직하고, 만세 격문 80여 통을 남북리, 을왕리, 덕교리 등에 배포했다.

24일 오후, 부평시장과 계양면 장기리 황어장터에서도 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부평에서 군중들은 면사무소를 파괴하며 경찰과 격투를 벌여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장기리 시장의 6백여 군중들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면사무소에 구금중인 심혁성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은선은 이 와중에 심혁성을 구출했으나 왜경이 내리친 칼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순절하고 말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장기리 일대의 만세 시위는 더욱더 격렬해졌다. 시위는 자정까지 계속됐고 장기리 만세 주동자 28명 대부분은 옥고를 치렀다.

3월 하순에 들어서도 만세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27일 일본인 부윤(현 시장 격)은 한국인에게 상점을 열 것을 협박했으나 한국인 상인들은 문을 열지 않았다. 당시 신문들은 인천의 철시 상황을 보도하면서 ‘해변의 파도 소리만 시가지를 울렸다.’고 전할 정도로 시가지는 정적에 휩싸였고, 민심은 흥흥했다. 강화의 9개 지역에서도 이 날 2천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28일에도 남동과 용유도에서 만세를 부르던 군중들이 왜경에 체포됐고, 특히 29일 밤의 월곡리 시위와 4월 1일 밤 강화 읍내에서의 시위는 송해면을 거쳐 양사면, 하점면에 이르기까지 모두 13곳의 봉화가 연결된 한밤의 횃불 만세여서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 이후의 강화 지역 만세 운동은 대부분 각 동리 단위로 초저녁 산 위나 언덕에서 행한 횃불 만세였다. 인천부 내에서는 30일까지 철시 항쟁이 계속됐다. 이 날 수백 명의 천도교 교인들이 북성 고지로 만세 시위를 벌이다 해산 당했다. 31일 서창리(현 남동구 서창동) 거주 송성용 등이 만세를 모의하다 체포됐고, 4월 1일에는 1천 수백여 명이 월미도에 모여 만세의 함성을 올렸다.

인천의 3·6 만세 운동의 대미는 4월 2일 만국공원에서 펼쳐졌다. 이 날 아침 이민태, 홍진의, 이규갑, 한남수, 홍면희, 김규, 박용희, 이종욱, 권혁채 등은 만국공원에서 국민대회를 열어 조선 가정부를 선포하고, 파리강화회의와 세계 각국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며 그 취지를 담은 선포문을 일반에게 알렸다. 이 만국공원 대회는 인천의 만세 운동 가운데 가장 조직적이었고, 만세 운동을 국제적 차원에서 행했다는 면이 두드러진다.

인천의 항일 운동은 이렇듯 학생, 노동자, 농부, 상인, 종교인, 지식인 등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광범위하게 지속되었다. 개항 후 인천사람들의 내면에 축적되어 왔던 항일의 뜨거운 에너지가 마침내는 3·6 인천 만세 운동으로 뿔뿔히 불타올랐던 것이다.

글 _ 조우성(시인 · chowws@hanmail.net)



1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군중들(경성) 2 인천 전역에 배포됐던 독립선언서 3 인천 최초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명진의 고등법원 판결문 4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이만용(李萬用) 지사(인천공립학교 3학년 시절) 5 만세운동의 현장. 일제 기마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경성)

고을마다 울려퍼진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계양구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위 :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아래 : 계양구 장기동의 황어장터 기념탑

계양구 장기동에 황어장터 3·1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오롯이 서 있다. 황어장터란 예로부터 이 지역에 잉어가 많이 잡힌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해 8월 준공된 가로 13.2m, 세로 4.5m, 높이 13.1m의 이 기념탑은 황어장터의 역사성과 3·1만세운동의 기상을 도도히 전하고 있다.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거족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계양주민들은 3월 24일 심혁성 지사의 주도로 600여명이 일제에 항거하여 대대적인 독립만세를 불렀다. 당황한 일제는 심혁성을 체포했고, 장기리의 임성준 등 주민 200여명은 만세운동과 더불어 심혁성 탈환운동을 전개했다. 강서지방에서 최초이자 인천지역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황어장터 만세운동으로 이은선 지사가 순국했고 40여명이 일경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심문을 당했으며, 중심인물로 지목된 인사들은 혹독한 옥고를 치렀다.

탑의 뒤편에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기념관은 4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입구 오른쪽부터 차례로 감상하는 것이 좋겠다. 1면에는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만세운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아래편 전시대에 놓인 기미독립 선언서와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관련 판결문이 당시의 사실을 증명해 준다. 왼편으로 두 걸음만 옮기면 제2면이다. 황어장터와 3·1만세운동의 내용과 역사적 의의를 설명했다. 여기에는 3·1만세 운동 당시의 계양지역의 모습을 담은 빛바랜 흑백사진이 나란히 걸려있어 눈길을 붙잡는다. 아래쪽 전시대에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이 보도된 1919년 3월 27일자 매일신보 기사가 증거 자료로 전시돼 있고 심혁성 지사의 수형자카드, 예심종결문 등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3면에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의 전개’, 4면에는 ‘일제의 탄압과 수난’ 등 황어장터의 만세운동과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기록물들이 정갈하게 정리돼 있다. 한편 중앙전시대에는 심혁성 지사의 초상화와 판결문 등이 전시돼 있어 어린 학생이라도 치열했던 인천에서의 만세운동을 상상해 보고 공부하는데 충분하다.

전시실 이용시간 _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2·4주 토요일과 매주 일요일은 휴관
문의 _ 계양구 문화공보실 (450-5871~6)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발상지 기념비

인천 3·1운동의 불씨는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에서 지펴졌다. 당시 인천의 유일한 공립보통학교였던 4년제 인천공립보통학교에 다니던 3·4학년들이 3월 6일 정오에 학교를 출발해 인천공립상업학교(현 인천고등학교) 학생들과 합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인 것이다.

이를 기념하는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발상지 기념비가 창영초등학교 운동장에 세워졌다. 창영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당시의 고증 자료를 수집하고 재판 기록문을 입수해 1995년 모교에 건립한 것이다.

이 비에는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옥고, 징역, 부역을 당한 동문의 명단과 현황이 빼곡히 적혀있다. 뒷면에는 ‘나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바탕한 의사발동이지 범죄가 아니다’라는 만세운동을 주동했던 김명진의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상고문을 발췌해 새겨 넣었다.



용유동 삼일독립만세 기념비

기미년 삼월일일의 만세운동은 비단 내륙지방에서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다. 인천 앞바다의 용유도에서는 3월 23일 조명원, 조정서 등 열 한명이 혈성단이라는 비밀 항일 투쟁단체를 결성하고 만세 격문을 배포한데 이어 28일에는 관청리 광장에 모여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비록 일본의 무력에 무참히 짓밟혀 옥고를 면치 못하고 독립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는 바다와 육지에 한결같이 일렁였다.

공항고속도로 신불IC를 거쳐 공항남측도로를 달리다 용유도 방면으로 접어들면 덕교삼거리를 지나 용유중학교 옆에 용유쉼터가 조성돼 있다. 쉼터에는 국가보훈처지정 현충시설인 삼일독립만세 기념비가 서 있어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게 한다. 기념비에는 ‘애국애족’ ‘지성보국’이라 적힌 두 기둥위에 검은 대리석으로 만세운동의 현황과 추도시, 용유8경 등이 새겨져 있다.

글 _ 정경애 (happyjka@incheon.go.kr) /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만세운동

1919년 3월 6일	인천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에 돌입, 만세운동 참여	3월 27일	문학동 만세운동
3월 8일	인천 시내 독립선언서 다수 배포	3월 28일	용유면 만세운동
3월 9일	만국공원(현 자유공원) 만세운동 전개. 경인가도 50여명이 만세를 부르다 주동자 1명 체포됨	3월 30일	인천 내리 상가철시 운동
3월 13일	소래면 주민들이 소래산에서 만세운동 전개	4월 1일	월미도 만세운동
3월 24일	부평 황어장터에서 600여명이 만세운동 전개	4월 23일	인천 만국공원 13도 국민대표자회의 소집

똑똑한 배터리로 세상을 ‘電’ 한다

노트북 · 휴대폰용 스마트배터리 칩 개발

요즘 누구나 손에 하나쯤 들고 다니는 것이 핸드폰이다. 최신 핸드폰으로는 결제를 할 수도 있거니와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다운받아 볼 수도 있으니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만사 OK인 셈이다. 그러니 지갑은 안가지고 나와도 핸드폰은 챙겨야 안심이 된다는 현대인들에게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다양한 기능을 위해 배터리의 용량이 커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용량에 맞게 무작정 커진다면 휴대하기 불편해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용량으로 몇 곡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영화를 몇 분 볼 수 있고 또 얼마동안 통화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배터리 방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고 배터리의 용량이 무작정 커져야 하는 딜레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배터리’. 배터리의 남은 양을 표시해주고 전지의 정보를 받아서 사용자가 스스로 배터리를 관리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사용하는 사람의 패턴을 학습해서 사용자에게 맞게 배터리를 관리하는 기능까지 해준다. 스마트배터리는 노트북의 경우 100% 장착돼 있어서 사용자 특성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화면이 꺼지거나 흐려져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3 STB가 개발한 스마트배터리 칩 2 스마트배터리가 장착된 휴대폰. 배터리의 남은 용량과 사용 가능한 시간 등이 표시된다 4 24시간 연구로 불을 밝히는 STB연구소 5 STB 이명수 소장



최첨단의 스마트배터리를 만들고 연구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단 세 곳 뿐이다. 미국의 텍사스사(TI)가 가장 먼저 개발을 시작했고 달라스사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STB가 가장 늦게 스마트배터리 칩 개발에 뛰어 들었다.

스마트배터리는 핸드폰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휴대폰 생산과 이용률이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용 스마트배터리 칩 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발기업인 미국의 TI사 등은 노트북용 스마트배터리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대학원에서는 메카트로닉스를 전공한 이명수 소장은 기업체 연구소 근무의 경험을 살려 1998년 ‘벽해’를 창업했다. 벽해는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줄임말. 젊은 기업가의 야심이 그대로 담겨있는 이름이다. 2000년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외국인들도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 ‘S(System)T(Technology)B(ByuckHae)’로 이름도 바꿨다.

창업 이후 이소장은 스마트배터리 국산화를 위해 200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스마트배터리 칩 개발에 몰두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 구석에 야전침대를 놓고 조각잠을 잤고 집에 들어가기 시작한지 이제 겨우 2년 남짓 됐을 정도다. 덕분에 98년 창업 당시 106kg에 육박하던 그의 몸무게는 한때 55kg으로 줄었고 지금은 좀 편해져서 76kg이 됐다.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아는 그 이기에 회사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연구소만큼은 화려한 침실을 갖추도록 꾸며주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이같은 연구끝에 2002년, 드디어 스마트배터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칩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최고의 핸드폰생산업체가 2년여에 걸친 실험 끝에 빠르면 올 상반기에 STB의 스마트배터리 칩을 장착한 핸드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명수 소장은 이 업체가 스마트배터리를 장착한 핸드폰을 시판하게 될 경우 다른 후발 업체들도 뒤를 이을 것이므로 휴대폰용 스마트배터리의 폭발력은 노트북의 그것에 비교할 만 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노트북용 스마트배터리를 처음 만들었던 미국의 TI사는 지금까지도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을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동양창업투자는 STB의 매출 가능성을 2조원으로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망하면 ‘썩박’이지만, 성공할 경우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는 예견 때문이다.

스마트배터리가 모든 휴대폰에 장착되는 날, 핸드폰이 들어있는 소비자의 주머니는 더 가볍고, 얇고, 또 편리해질 것이며 STB는 손톱만한 칩 하나로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이다.

글 _ 정경애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외세와 맞선 격동의 군영

아침에 오렌지 한 개를 삼키고 온 사람처럼 윤정자(47) 문화유산 해설사는 노란 에너지에 꽉 차 있었다. 폐활량도 커서 확성기를 달았나 싶게 목소리는 찌렁찌렁, 단체가 아닌 너댓 사람 앞에서도 습성처럼 볼륨이 높다. “좋아서 그래요. 우리고장 문화재를 알리는 게 신이나요.” 병거지 모자를 눌러 쓴 채 조용하게 있던 엄마 곽화자(41)씨가 입을 열었다. “집에서 공부하라고 닦달만 하기 미안하잖아요. 역사 속으로 소풍가자! 하고 데리고 나왔죠.” 딸 김지희(부곡초2)와 같은 학교 4학년 안유빈양은 사춘기간. 실로폰으로 높은 도를 칠 때의 그 경쾌한 재잘거림이 그치질 않자 엄마는 입가에 검지손가락을 세웠다. “쉴! 조상님 겨울잠 깨실라 조용히 해.”

‘화도진’이란 뜻이 뭐예요?

봄이면 화도진 공원(동구 화수동 138)이 굉장히 예쁘다. 입구부터 2만여 그루의 철쭉이 축포를 터뜨리듯 일제히 피어나면 축제를 방불케 할 정도. 매년 5월 22일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날에는 이를 기념해 상춘객들과 함께 화도진 축제를 갖는다. 구한말 고종이 어영대장을 인천에 내려 보낸 행차 장면을 재현하며 전통무예 공연, 조선병기 전시회 등을 연다. 조선시대 감옥 및 형틀 체험행사와 주먹밥 무료시식회도 열린다. 공원의 동헌 마당을 전통혼례식장으로 개방하고 전통혼례에 필요한 비품도 빌려주고 있다.

방문객 중에는 우연히 동네 공원인 줄만 알고 왔다가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덤으로 횡재하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음, 꽃이 많아서 화도진이구나.” 유빈이는 꽃 ‘花’ 자를 연상했나 보다.

“아니요. 이곳은 바다 쪽으로 길게 뻗쳐진 육지를 뜻하는 ‘곶’의 모양이어서 ‘곶섬’으로 불리다 된발음 때문에 ‘곶섬’이 됐어요. 옛날에 군사기지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를 한자로 ‘화도진(花島鎭)’이라고 표기한 것이지요.”



“서울로 가는 모든 배는 멈추시오”

고종 16년(1879년) 인천 앞바다에 일본 군함을 비롯해 외국 선박이 자주 출몰하자 외세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화도진을 설치했다. 연희 포대·팽이부리 포대·북성 포대·논현 포대를 관장하며, 영종도에 설치된 수군기지와 더불어 한강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강화도 수로를 지키던 진지였다.

상업을 억제하고 무역을 금하는 등 철저한 대외 봉쇄정책으로 일관했던 조선시대에 인천은 문물 교역을 위한 항구가 아니라 한양 수비를 위한 지방 군사기지로 강화도 조약 이후 무리하게 인천의 개항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이 일대가 다 바다였다는 말인데 상상이 안가요.” 지희 엄마는 화도진 가까이 갯고랑 바닷물이 들고나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형을 보면 너무 많이 바뀌었지요. 바다가 매립돼서 땅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인데, 그리 높지는 않지만 바다에서 섬을 보면 해발 80m가 됐다고 하네요. 원래 터가 이곳보다 좀 아래쪽에 있었다는데 15년간 있었던 화도진이 개항으로 인해 기능조차 무의미한 곳으로 변했어요. 갑오개혁으로 군제가 개혁되면서 모든 군대가 군부에 소속돼 철폐되었고, 1890년대 완전 폐쇄되면서 판자촌이 들어서고 자취가 없어졌지요.”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된 것은 불과 16년 전이다. 한미수교 100주년이 되는 1982년 이를 기념하기 위한 복원계획을 세우고 1988년 올림픽이 있던 해 9월, 검여 유희장의 화도진 복원도(그림지도)를 토대로 동헌과 포대를 갖춘 건물로 복원해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1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서는 문 2 실제 모습을 방불케 하는 조선군졸 밀랍인형 3 화도진내의 유물전시관



1 동헌 앞에서 윤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일행 2 역사의 현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광화자씨 가족

동헌 앞마당 휘장치고 한미 수호통상조약

이곳에서 고종 19년(1882) 5월 22일 고종의 전권대신 신현과 미국의 전권대사 슈펠트 제독 사이에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에 이어 6월에는 영국, 독일 등과 수호통상조약을 잇달아 맺어 우리나라 근대화와 문호개방의 역사적인 현장이 되었다.

인천항을 열지 않기 위해서 외세를 감시하던 곳 화도진. 3년 만에 그 본 뜻과는 다르게 서양 각국과의 조약 체결을 그 자리에서 맺게 된다. 조선정부는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인 인천의 개항을 꺼려 부산항, 원산항이 개항되고서도 2년이 지나서야 문을 열었고 이는 1883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세가 급변해 개방을 안 할 수 없게 된 약소국은 울며 겨자를 먹지 않았을까? 흑백의 양면 색종이를 ‘휼’ 뒤집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동헌은 관아의 본 건물로, 방 한 칸에는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모습이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아이들은 진짜 사람 같아 신기해하면서도 흠칫 두려워한다.

왼편 내사는 안주인의 거처로 방마다 반닫이, 반진고리, 보료, 패물함, 버선장 등이 놓여있고 대청마루에는 찬장과 쌀뒤주 등 당시 생활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내사에서 옛 물건들을 보고 전시관으로 향했다. “TV 이순신드라마에서 쇠단추가 박힌 저런 갑옷 봤어요. 우리도 책가방 메고 다니면 무거운데 장군님도 어깨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큰 자루처럼 생겨서 별로 안 예뻐요.” 유빈이는 갑옷은 관두고 조선시대 군대에서 신호용으로 사용하던 장대만한 쌍나팔을 탐냈다. 유물전시관으로 꾸며진 행랑채는 화도진 그림지도와 100분의 1로 축소된 화도진 복원 모형 그리고 당시에 사용됐던 불랑기 4, 5호 등 무기류가 전시되어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선시대 군사제도라든가 기록들을 보면 70~80명 정도의 군인이 주둔하면서 방어했다고 짐작돼요. 좁은 방 6칸에서 그 많은 군인들이 어떻게 잠을 잤을까 궁금하죠? 포대로 파건을 나가고 해서 인원은 들쭉날쭉 했다고 하네요.”

해설사는 동헌 옆 복원된 우물가로 안내했다. 당시 병영과 군사들이 사용하던 우물은 햇빛에 눈부시다. 일행은 은화 100원씩을 물속에 빠뜨리면서 소원을 말강게 담갔다. “저는 짝꿍 잘 만나게 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모두 오래 살고 전쟁 안 나게 해 달라고요.” 어른들은 아무 말이 없다. 너무 깊이 소원을 빠뜨렸나보다.

지희와 유빈이는 그동안 창작동화, 과학동화를 많이 읽었는데 앞으로 역사책을 관심 있게 읽을 거라고 한다.

인천역사 공부시간에 선생님이 “화도진에 대해서 말 해 볼 사람?” 하면 번쩍 손을 들고 발표할 거라고. 엄마와 아이들은 이번 탐방이 계기가 되어 인천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기로 맘먹었다.

찾아가는 길 _ 대중교통 이용시 동인천역에서 하차 2번, 10번 시내버스(5분거리)를 탄다. 화도진공원까지 걷기는 15분 정도, 택시를 탈 경우 기본요금이 나온다.

글 _ 조은숙 (부평사람들 기자 · eyagi9090@yahoo.c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이 코너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둘러보고 싶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정해서 전화(440-2072) 또는 이메일(happyjka@incheon.go.kr)로 신청하세요. 참가하는 분께는 문화상품권(1만원권) 2매를 드립니다.

yummy yummy | 외국인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인천은 국제도시이다. 국제공항과 항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음식’은 지역의 문화이자 역사이다. 우리시는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맛 좋고 친절하며 깨끗한 음식점 90군데를 선정했다. 메뉴별로 매달 4군데씩 시리즈로 소개한다. (자료제공 _ 시 보건위생과, 아이디어)

한식 **아리랑** | 남구 주안6동 1582-12 | TEL : 423-7718

스페셜메뉴 : 한정식, 고기류
 영 업 시 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찾 아 가 기 : 일반버스 15번, 23번, 28번 이용 후 석바위사거리 하차

양식 **라이브 웰브** | 계양구 계산동 산40,70,72,73 | TEL : 549-8877

스페셜메뉴 : 스테이크
 영 업 시 간 : 오전 11시~오전 3시
 찾 아 가 기 : 공항좌석 111번 이용 후 계산초등학교 하차

주식 **희래등** | 서구 가좌동 302-2 | TEL : 505-5800

스페셜메뉴 : 탕수육, 간pong
 영 업 시 간 : 오전 9시30분~오후 10시
 찾 아 가 기 : 공항좌석 112번 이용 후 서구청 하차

양식 **인천수협회백화점** | 중구 북성동1가 104-14 | TEL : 888-5801

스페셜메뉴 : 생선회
 영 업 시 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찾 아 가 기 : 일반버스 24번, 28번, 33번 이용 후 연안부두 하차



‘깍동’ ... 홍등(紅燈) 꺼지다

학익동은 지난 40년 동안 ‘깍동’으로 불렸다.
1960년대 초 학익파출소 뒤편에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학익동은 인천의 대표적인 집창촌이 되었다.
한때 100여개 업소에 1천명이 넘는接客업소 여성들이 살던 ‘특정지역’이었다.
이제 깍동의 붉은 홍등이 하나들 꺼져 가고 있다.
밤화장을 질게 한 그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앉아있던 쇼윈도들은
굴착기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터전을 잃은 그 누이들은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을까...

글 · 사진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봄바람은 피부의 ‘공공의 적’

글 _ 전호수 (에이스 피부과 503-5600)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은 피부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계절이다. 건조한 봄바람과 함께 자외선이 강해지기 시작해 피부가 거칠어지고 기미나 주근깨 같은 색소 질환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꽃가루, 황사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자주 나타나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피지 분비의 증가와 공기 중 먼지에 의해 피부는 더러워지고 모공이 막혀 여드름이나 뽀루지 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봄철 피부 관리의 초점은 적절한 피부 보습 및 청결 유지, 자외선 차단, 각질(角質) 제거와 피지(皮脂)의 조절 등에 맞춰져야 한다.



피부 관리의 첫 단계는 피부 청결이다. 외출 후에는 화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해물질이나 피부의 분비물로 더러워진 피부를 깨끗이 씻어줘야 한다. 세안 후 보습제와 에센스로 수분과 유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도록 한다. 이 시기는 건성 피부염이 잘 생기므로 목욕을 자주 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샤워 정도가 바람직하다. 샤워할 때 뜨거운 물보다 피부온도보다 약간 낮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며 피부건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비누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특히 때수건으로 피부의 때를 벗겨내는 것은 금물이다. 목욕 후에는 수분이 함유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외선은 각종 피부염과 색소침착, 피부노화 등을 촉진하는데 봄철에는 나들이 등 외부 활동의 기회가 많아 자외선 차단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외출할 때는 모자, 양산 등을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파운데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외출 30분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특히 골프 등 장시간 야외활동을 즐기는 경우에는 약 2~3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야 한다.

아울러 균형이 있는 영양 섭취와 충분한 휴식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평소 물을 많이 마시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이나 술, 담배를 피하며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또한 즐거운 마음을 갖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피부의 건강은 몸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환절기에 몸이 지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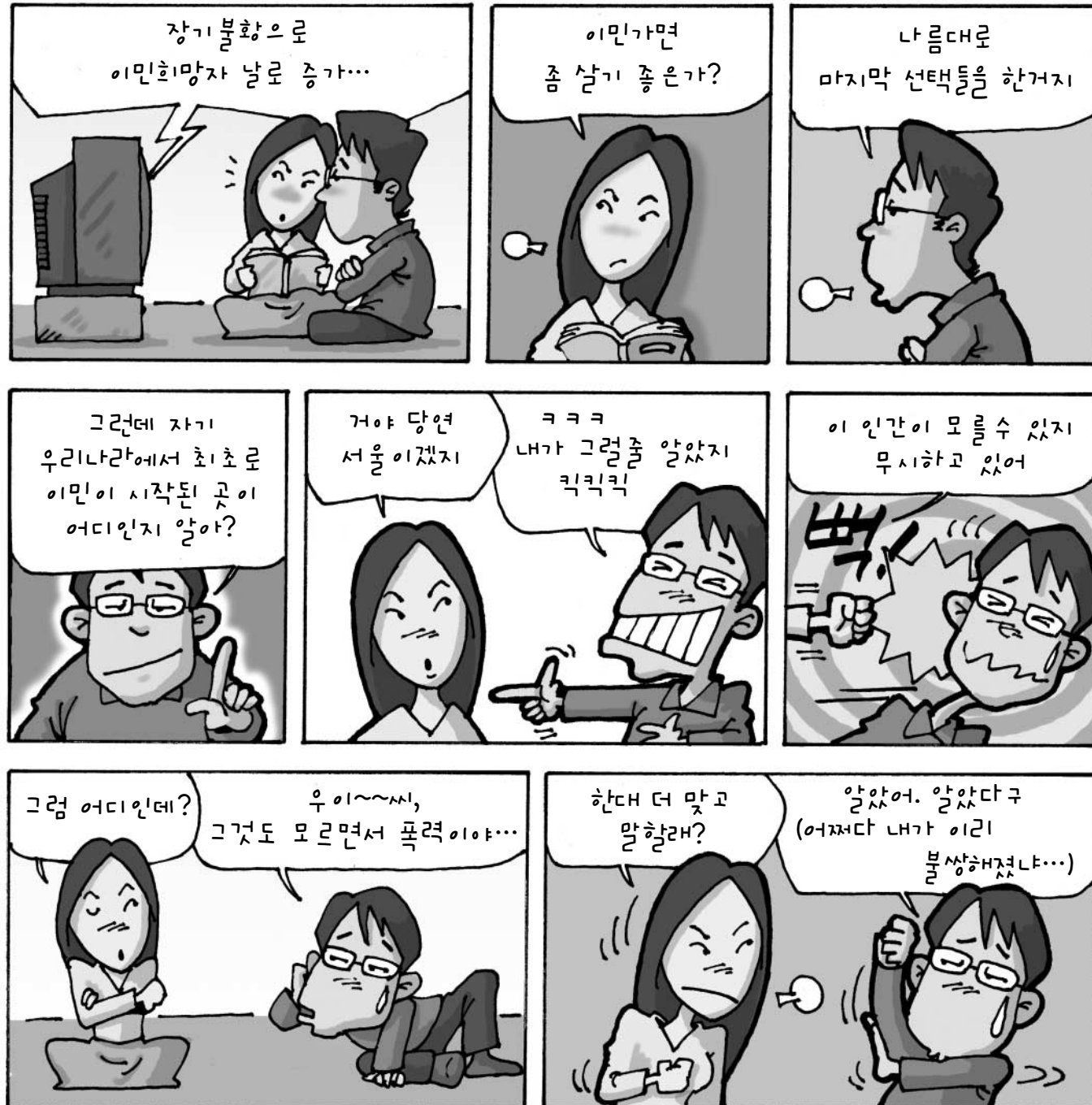
이 시기에는 피부염과 함께 기미와 주근깨가 문제될 수 있다. 기미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데 봄과 여름철에 발생하는 강렬한 자외선이 주범이다. 이 외에도 임신, 피임약, 스트레스, 유전적인 소인 등이 관여한다. 미백효과가 있는 화장품 등이 도움이 되며 비타민 C나 E가 함유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기미의 치료에는 다양한 미백 크림과 가벼운 박피, 색소 레이저, 비타민 C, 전기영동 요법과 같은 기존의 요법과 함께 최근에는 IPL 등 피부 재생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근깨의 경우는 유전적인 영향이 큰데 주로 5세 이후 나타나며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코·뺨·손·등·앞가슴 등에 생긴다. 크기는 직경 5~6mm 이하이며 모양은 둥글거나 타원형이다. 색소 레이저 치료 또는 IPL 치료로 효과적인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치료 후 자외선 차단 등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이민이 시작되 국!

(이민지 : 하와이 / 시기 : 1902년 12월 22일)



그림 _ 김신 (sin2113@hanafos.com)



‘3.3인치의 유혹’에 맞서는 작은 종달새와…,

금연상담사 김수경 씨



2월 오후의 햇살이 제법 따스하다. 이렇게 그만 겨울이 가려나? 그러나 초순이니 아직 봄은 아니다. 설령 봄 날씨라고 해도 이러다가 어느 날 꽃샘추위가 다시 올 것이고 또 느닷없이 눈발이 날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종달새를 만나러 간다. 어찌면 개나리도 피었을까. 느낌만이지만 지난겨울, 춥고 음산했던 회색의 시간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즐겁다.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기쁘다.

“한번 가 봐요. 정말 봄 종달새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은 절대 못 나와요.”

몇 주 전, 다녀온 적이 있는 Y는 이렇게 봄을 말한다. 종달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동구보건소 2층 계단을 올라선다. 아하! 묻지 않아도 금세 알아본다. 흰 가운도 그렇고, 밝게 생글거리는 눈빛도 그렇고, 조봇한 입술과 가름한 얼굴이 하나같이 귀엽고 앓되다. Y의 말이 맞았다. 종다리. 봄보다 우리가 먼저, 예쁜 종다리 김수경(金洙京) 씨를 만난 것이다.

종달새는 종다리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다. 하늘 높이 날아올라 봄이 왔다고 하루 종일 종달종달 고운 소리로 노래해서 종다리. 그래서 또 고천자(告天子). 웃으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겁(?)을 주고, 웃음으로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기도 하는 김수경 씨. 그녀는 동구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이다. 딱 어울리는 종다리 역할이다. 2층으로 올라서자마자 복도 한가운데, 누구나 들어오기 쉽게, 누구나 얼른 이 종다리 금연상담사와 눈이 마주치게 얇은 간이 칸막이로 된 내부가 금연클리닉이다.

“왜 끊으려고 결심하셨는지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음, 음,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음, 몸도 찌뿌드드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음, 요 며칠 전 아내가 첫 아기를 낳았거든요.”

삼십 초반인가. 남자 하나가 무슨 잘못이나 한 사람처럼 몹시 죄스러워하며, 또 수줍어하며 떠듬거린다. 옆에서 들어 보니 아주 힘들여 결심을 한 것 같다. 그걸 종다리 수경 씨가 빙그레 미소를 띠며 알아챈다. 그렇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흔들리기가 쉽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여기에 오지 못한다. 제 발로 와서 걸려든 포로는 어떻게 하든지 낚아채서 단번에 완벽히 제압해야 하는 것이 수경 씨의 전술이고 목표. Y가 그냥은 못 나온다고 한 말은 이런 뜻이다.





드디어 수정 씨가 종다리 탈을 벗고 남자에게 사람 가슴 모형을 내놓는다. ‘3.3인치의 유혹’을 막기 위해 검은 타르가 허파파리 속속들이 침착(沈着)한 징그러운 그 모형 허파를 열고, 손으로 가리키며 일산화탄소 중독 운운, 겁을 준다. 3.3인치는 담배를 뜻하는 말로 ‘3.3인치의 유혹’이라는 코너 굿맨의 담배에 관한 책 제목에서 따온 말이다. 그런 다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폐암으로 돌아간 모 코미디언의 생전 투병 모습 사진을 꺼낸다. 음. 남자가 입맛을 다신다. 생글생글 웃으며 내민 수정 씨 손 위에 남자가 꼼짝 못하고 주머니에서 3천 원짜리 담배 한 갑을 꺼내 올려놓는다. 수정 씨가 짓궂게 열어 본다.

“어머나, 두 개비밖에 안 피웠네요.”

“네.”

“아쉽죠?”

장난꾼처럼 수정 씨가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이를테면 수정 씨 나름대로 아주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다. 담배 갑에 날짜와 이름 같은 걸 적고 테이프를 붙인 뒤, 개인 카드를 작성하고는 체중, 신장, 혈압을 재고 중독 테스트를 한다. 다행히 남자는 중독 정도가 중간급이다. 가급적이면 술을 마시지 마라, 흡연자와 동석하지 마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라, 하는 따위의 몇 가지 주의 사항과 함께 남자에게 몸에 붙이는 금연 패치를 한 갑 내 준다. 무료라고 한다.

“흡연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니코틴이거든요. 이걸 붙이면 흡연 욕구가 사라지죠. 물론 금단 증상도 없구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체크를 할 것을 약속하고, 남자는 들어올 때보다는 훨씬 편안해진 모습으로 계단을 내려간다. 이제부터 6개월간 이 남자는 종다리 간호사의 행복한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담배를 졸업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이 종다리 상담사를 이길 수 있을까?

작년 11월 1일에 처음 문을 열고 어제까지 근 200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한다. 그리고 좀 성급할지 모르지만, 그 중 70%가 넘는 사람들이 성공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 대략 150명쯤이다. 이화용(李和容) 동구청장이 시범으로 금연 클리닉에 참가, 성공한 케이스 1호. 한 여류 소설가도 참가한 지 한 달 이상 지났는데, 거의 완벽하게 성공 조짐이 보인다고 자랑이다.

그런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요즘은 매일 20~30명씩 찾는다고 한다. 하루 종일, 잠시도 쉬지 않고 상담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신이 나는 모양이다. 타르와 싸우고, 니코틴과 싸우고, 일산화탄소와 싸우는 것이 보람이란다. 병원 간호사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그래서 입소문이 났는데 소문 중에는 김수경 씨가 아주 친절하고 명랑한 데다가, 중요한 한 가지, 용모가 예쁘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앞의 두 가지는 틀림없이 맞다. 그렇다고 마지막 한 가지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꼭 그 때문에 금연클리닉이 성시를 이루는

진 아니라는 말이다. 이 종다리의 날개가 착한 천사의 것이고 그 음성이 봄 시냇물을 닮았기 때문에 담배 끊고 싶은 사람들이 저절로 오는 것이다. 구원을 위해 봄을 찾아오는 것이다.

“오래 기다리셨죠? 담배는 안 하신다고 하셨죠?”

그나마 자기 직무에 관한 것이지만 도무지 마주앉아 이야기할 틈이 없다. 다시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자 지망생 한 명이 또 들어온다. 다소 굳은 듯하던 종달새의 얼굴에 미소가 핀다. 아, 아저씨! 남자는 클리닉에 등록한 지 여러 주일째인 듯하다. 삼십 몇 년 흡연 경력을 이제 말끔히 지워 나가고 있는 중이다. 몇 마디 주고받고는 다시 약을 건넨다.

이 이저씨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은 게 더 대견한 듯해 보인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기분 좋은, 흔한 세상 아저씨 얼굴로 초콜릿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감사의 선물! 수정 씨가 얼굴이 빨개서 고개를 흔들다. 그 모습이 우습고 정겹고 귀엽다. 뭐, 별거도 아닌데. 담배 값으로 치면 벌써 돈 십만 원은 후딱 달아났을 걸. 이 호남(好男) 아저씨는 오늘 종다리가 못내 고맙고, 또 한편 자기 앞에 펼쳐진 인생이 더없이 행복한 것이다.

오후 네 시가 넘도록, 그리고도

연달아 5명의 금연 지망자가 차례로 들어온다. 하는 수 없다. 나눈 이야기는 별로 없지만 일어설 수밖에 없다.

종다리 수정 씨에게는 도무지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없다. 한 점의 그늘도 한 줄의 구김살도 없다. 시를 별로 읽지 않아서 조금은 ‘비기 싫지만’ 그러나 차라리, 가려진 듯하고 음울하게 느껴지는 실루엣이나 환상보다는 천진한 아름다움, 정직하고 건강한 현실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예쁘고 친근하다.

삼십 초반인데 수정 씨는 아직 아기를 낳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처럼, 아직은 자신이 더 낳고 싶은지 옛날 ‘펼씨스터즈’ 스타일 청바지를 입었다. 가운 밑에 드러난 바지가랑이가 나팔. X형 끈으로 묶은 짧은 나팔바지다. 마신다면 소주 한 병. 주말에는 가끔 영화 구경도 가고, 추리 소설도 읽고, 또 주일학교 교리 교사 노릇도 하고, 성당에서 만나 친구였다가 남편이 된 한 남자의 아내도 되고, 함께 모시고 있는 그 남자 부모의 며느리도 되고... 힘이 벅찬 날도 있고, 가쁜한 날도 있고... 그러나 현실의 종달새 수정 씨는 이런 모든 것이 더없이 행복하고 소중할 뿐이다. 아, 종다리!

우연일까. 오늘 이 종다리 수정씨를 만나게 되려고 문득 어제는 천수만 새들을 보게 되었는지 모른다. 乙자로 눈 내린 논바닥에 내려앉은 가창오리, 기러기, 그리고 아직은 입을 다물고 겨울을 지내고 있는 종다리들. 겨울 새들이 거기 있어야 하듯, 우리 종다리 수정 씨는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런 아름다움, 예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꼭 만나보고 싶은 것이다.

글 _ 김윤식(시인 · eooul@hanmail.net) / 사진 _ 김보섭 (자유사진가 · ericahkim@yahoo.com)

인륜지 대사, 중매쟁이 선택도 꼼꼼하게

몇 해 전 상처한 전주명(가명·58·인천시 계양구)씨는 자식들의 권유로 재혼을 하기로 하고 한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모두 7번 소개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두 차례 소개를 받으면서 전씨는 결혼정보회사의 태도에 화가 났다. 처음 소개를 받은 사람은 동성동본이었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황당한 생각에 매니저에게 항의하고 더 이상 소개를 받지 않을테니 회원 가입비를 환불해 달라고 했으나 계약대로 다른 사람을 더 소개해 줄 수 있을 뿐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이혼 후 중학생인 딸과 함께 사는 윤미영(가명, 39세, 서울 반포동)씨는 인천의 한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전화를 통해 회원가입을 권유받았다.

전화를 한 업체직원은 회원가입만 하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으나 130만원을 주고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건의 사람들만 소개해 주었다. 실망한 윤씨가 계약해제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오히려 윤씨의 눈이 너무 높아서 생긴 문제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1999년 2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되면서 결혼상담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구제가 곤란하다. 따라서 결혼정보 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결혼정보 업체의 광고내용이나 직원들의 상담내용을 너무 과신하지 않아야 한다. 가입만 하면 이상적인 배우자를 금방 소개 해 줄 것처럼 말하거나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도 모두 들어주겠다고 했다가 계약 후 모른척하는 업체들이 있다.

우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회비 환불, 회원자격 상실 등 일방적인 사업자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약관을 만들어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라면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본인의 요구사항, 즉 소개상대자의 조건이나 계약 내용을 자세히 계약서에 기재해 넣는 것이 좋다. 나중에 계약이행 여부에 대해 분쟁이 생길 시 분쟁의 사유를 어느 쪽에서 제공했는지에 따라 계약해지시 가입비 환불조건이 달라지므로 그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생활센터(442-9872 <http://consumer.incheon.go.kr>)



이 달의 주제는 ‘입 학 과 입 사’

눈물이 핑!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유난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 ‘처음’이라는 말! 왠지 모를 설렘과 희망이 샘솟는 듯하다. 늘 그 단어를 대할 때의 마음을 유지한다면 정말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다. 내가 입학할 때보다 아들의 입학식에 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혀야만 했다. 기저귀를 차고 연년생 동생을 괴롭히기 일쑤였던 큰애가 의젓하게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서 있는 걸 보니 아빠답지 않게 눈물이 핑 돌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표정을 다잡은 뒤 아내를 보니 아내도 나 못지않게 감동 받았는지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지금 큰 아이가 고3의 문턱에 다다랐다. 어느새 그날의 감동은 아주 먼 기억속의 아지랑이가 되어있고 후배 녀석 아이 입학식을 ‘뭘 그까짓 것’이라며 이죽거리고 있다. 후배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적인 사건을 말이다. 아마 후배 녀석도 머지않아 마음 한 구석에 보관해놓을 일을...

함점수 (남구 용현동)

예비중학생

몸무게 3.3kg

어린애답지 않게

조용히 흐느껴 우는 아이.

네 모습에 엄마는

무한한 모성애를 느꼈다.

슬금슬금 커가는

아이에게 많은 욕심을

불어넣는 엄마.

네 모습에 엄마는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입학식날 3월 3일.

이제는 너와 나 사이

서로 잘 되지만 바랄뿐.

멋진 중학생이 되어

보람찬 인생을 설계하기 바란다.

김경숙 (서구 마전동)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졸업식

어제 교동초등학교의 92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은 학교 식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22명의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여든 5학년 후배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강단에 뺨곡히 들어와 앉아 있는 내빈 여러분들(정확하게 19명). 아무리 눈을 크게 떠 보아도 80명 이상을 셀 수 없는 조촐한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1등이 되어서 당당하게 졸업을 마쳤습니다. 22명이 장학금을 받았고 34명이 각종 시상을 휩쓸(?)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상식, 그렇기 때문에 1등 먹었다고 우쭐대거나 꼴찌 했다고 빈손으로 걸어나가는 불상사가 전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에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이번에 22명 졸업하는데요. 금년 입학생은 9명밖에 안됩니다.”

이래저래 배보다 배꼽이 큰 졸업식이었습니다.

구본선 (강화군 교동면)

솜사탕처럼 달콤한 입학식



아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나에게 동생이 생겼다. 1999년 2월 28일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그 순간의 설렘을 잊을 수가 없다.

엄마께서 케이크 멜로디

를 주시며 동생이 태어나면 생일축하 노래를 틀어주라고 하셨다. 내가 태어날 때에도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동생이 초등학교 입학할 하게 되었다. 생일이 빨라서 7살에 입학할 하지만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꿈이 과학자인 동생 재윤이가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형제의 우정으로 빛나고 있다.

재윤아, 작년 겨울 할아버지 생신 때 수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열심히 노래하고 손짓하던 너의 모습을 형은 사랑한다. 초등학교 등굣길을 같이 걸으며 너의 손을 꼭 잡고 형으로서 약속할게. 너를 언제까지나 지켜주고 지금처럼 우리 형제 다정하게 지내자고. 씩씩하고 멋진 재윤아, 초등학교 입학 진심으로 축하해.

※이 글은 사랑하는 내 동생의 초등학교 입학 선물 글입니다.

이재성 (만수북초등학교 4학년)

모녀, 선후배가 되다

몇 해전 겨울, 남편 직장이 우리 집의 반대 방향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됐다. 다 괜찮았지만 아이들 학교가 문제였다. 이사온 집 앞에 중학교가 있어 다행이 배정받을 수 있었다. 올해 2월12일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하는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추첨을 통해 배정받는 날이었다.

집근처에는 딸아이가 꼭 다니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내가 오래전에 졸업한 학교가 있었다. 딸아이가 입학하게 되면 모녀가 선후배기간이 되는 것이었다. 집앞의 좋은 학교를 놔두고 먼 곳의 학교를 다니게 되면 어쩌나 무척 초조해 하면서도 딸아이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었다.

나는 집 앞에 있는 학교로 배정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추첨날 마침내 딸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저 1지망 고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딸아이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배정은 제일 걱정했던 일, 최근 일어난 일 중 우리 가족에게 최고로 기쁜 일이다.

강현숙 (연수구 연수3동)

늦깎이의 입학식

내 나이가 어느새 오십대의 후반에 접어들었다. 마음속엔 언제나 찌꺼기가 가라앉은 듯한 후회가 있었다. 공부에 흥미가 없어 학교를 포기 했던 시절이었다. 이십대엔 결혼을 일찍 해 남매를 키우느라 느끼지 못하다가 삼십대부터 사회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했는지 모른다.

오십대에 들어 우연히 TV에서 성인들을 위한 학교가 있다는 것을 보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용기를 내어 힘들게 말을 했다. 우리 가족은 생각 외로 반겨주었다.

몇 십년 만에 중학교에 입학했다. 3월 3일 입학식 날. 청소년들과 같이 운동장에서 선후배간 인사를 했다. 나는 남인천 중학교 1학년1반. 나의 학창 시절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엔 서먹함이 있었지만 한달이 지난 후부터는 학생들이기 전에 아줌마들의 표현 그대로였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흐르며 나는 학생회 부회장이 되었다.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나는 학생회 부회장으로 일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남은 학창시절 맘껏 일하고 즐겁게 학생회도 화합할 것이다.

이제 사월이면 체육대회가 열리고 오월이면 수학여행을 간다. 입학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먹고 나면 오늘도 나는 책가방을 들고 남인천고등학교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박순예 (연수구 연수1동)

입학식을 기다리며

큰 딸에 비해 키도 작고 체구가 작은 둘째딸은 어느 날부터인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달력에 엑스자를 그려가는 버릇이 생겼다. 아마도 3월 2일 입학식을 기다리는 눈치다.

친구들은 취학통지서가 나왔는데도 우리 아이는 통장님께서 누장을 부리는 바람에 늦게 전달된 어느 날이었다. 원에서 돌아온 아이는 다녀왔다는 인사대신 “엄마 취학통지서 나왔어요?”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남편이 아이를 놀리려고 한마디 거들었다. “밥 잘 먹지 않고 키 작은 아이는 학교에 갈 수 없어” 그 순간 그 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혔다. 아이도 나름대로 많은 걱정을 한 것 같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난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키가 작아도, 똑똑해서 학교에 갈 수 있단다.” 이 말에 아이는 금방 표정이 밝아졌다.

예비 소집일 날 학교에 가는데 큰 아이 때와는 사뭇 다르다. 설렘도 큰 아이 때보다는 덜하고 내 눈이 가는 곳도 엄마 손잡고 따라온 아이들이었다. 우리 아이보다 키들도 크고 몸집도 컸다. 옛말에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도 또래들 보단 작지만 언니보다 학교생활을 더 멋지게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둘째딸 아영이 아자,

아자, 아자!!!

황금숙 (서구 가정3동)



다음달 테마는... ‘친구’입니다

‘친구’에 얽힌 재미있는 글(200자 원고지 3매 이내)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3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뽀루통했던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날. 남들은 엄마랑 사진찍는데 난 새 언니랑 사진을 찍었다. 나는 5남매중 막내. 엄마는 나를 서른일곱 늦은(?) 나이에 낳으셨다. 입학식날, 나이 많은 엄마가 창피했는지 엄마랑 안간다고 떼를 쓰는 나를 엄마는 이해해주시고 새언니를 같이 보내셨다. 이제 내나이 서른셋. 귀엽게만 키우신 늦둥이 막내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엄마를 생각하니 새삼 송구한 마음 뿐이다.

오현숙 (부평구 산곡3동)



대학교 동아리 졸업사진

99년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끼리 졸업식때 찍은 사진입니다. 벌써 즐거운 과거 속의 회상으로 남아 있군요.

정연호 (계양구 효성동)



오빠의 입학사진

올 오빠의 입학사진입니다. 오빠들의 유년적 모습이 무척 귀엽게만 느껴집니다.

황연실 (남동구 고잔동)



초등학교 입학하다

1979년 간석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한글조차 떼지 못하고 입학했던 국민학교. 이제 학부형이 되어 버렸네요.^^ 가끔씩 생각나는 그 시절이 그림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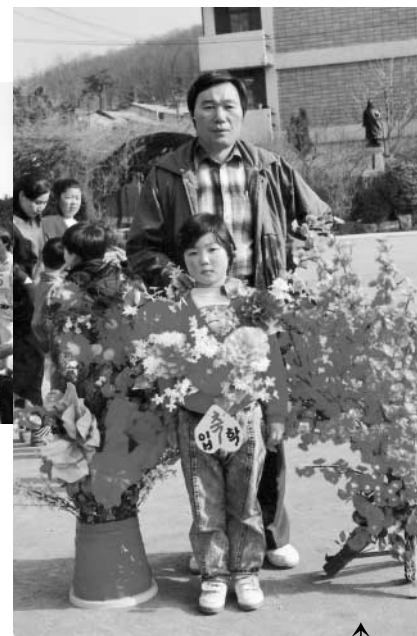
이상화 (부평구 청천동)



악몽같은 극기훈련

사회에 첫발을 디딘 신입사원 연수과정 중에 극기훈련이 있었어요.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더군요. 제가 키가 좀 큰 관계로 여직원 선두로 섰었는데 우리조가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칭찬을 많이 받았답니다.

최윤정 (서구 검암동)



붕어빵 부녀 웃어보아요

12년전, 막내동생 초등학교 입학하던날, 무뚝뚝한 아버지의 표정과 사진기 앞에서 얼어버린 동생얼굴이 너무 달았죠? 자~ 자~ 웃어보아요.

강윤희 (서구 가좌2동)

희망의 숲 조성 기념식 및 그린인천 걷기대회

푸른 도시를 바라는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희망의 숲 조성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과 걷기대회가 열립니다.

- 일시** : 3월 2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기념식(남동구 중앙공원2지구), 걷기대회(중앙공원2지구 ~3지구~4지구~5지구~8지구)
 - 부대행사**
 - 제막식 : 녹지성금을 낸 인천시민들의 명단이 들어간 상징물 제막식
 - 병아리예술단공연, 건강체조 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
 - 주최** : 인천광역시, 경인일보사
 - 주관** :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걷기대회 참가신청** : 시 녹지조경과(440-3661), 경인일보 인천본사 (861-3201~5)
 - 신청일** : 3월 15일 (선착순 마감)
 - 참가비** : 무료 (참가자 전원에게 경품제공)
- 문의 _ 경인일보 인천본사 (861-3201~5)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인천여고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제물포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2005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가 인정한 일반계 고등학교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자격** : 중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로 무시험 서류전형 입학.
- 모집인원** : 약 200명 선착순 모집
- 제출서류** : 중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4매
- 원서접수** : 3월 25일까지
- 특전**
 - 연령에 제한 없고 졸업 후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 출석수업은 격주 일요일 (한달에 2번 둘째, 넷째 일요일)
 - 방송수업 : 월~금 FM 104.5MH에서 방송청취(매월 방송통신교재 무상제공)
 - 사이버강좌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반복학습 가능
 - 저렴한 학비 부담 : 등록금 1년에 약 15만원, 교과서 대금 1년 5만원

문의 _ 인천여고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실 (810-6317 6329) 제물포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실 (770-4741 763-253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

말기암이나 시한부 환자, 장기 입원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이 실시됩니다.

- (사)인천광역시호스피스센터 제13기**

- 교육기간 : 3월 7일~5월 9일 (10주 매주 월요일 오후 1사~4시)
- 모집인원 : 18세 이상 선착순 100명
- 장소 : 인천기독교교회관 7층 강당
- 수강료 : 접수비 1만원
- 문의 : 인천호스피스센터 (434-7007 남동구 구월1동 1131-12 기독교교회관 302호)
- 인천호스피스 제16기**
 - 교육기간 : 3월 10일~5월 26일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12시30분)
 - 대상자 : 호스피스 봉사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 장소 : 인천사랑병원 강당 (7층)
 - 교육비 : 60,000원 (교재비 포함)
 - 문의 : 인천호스피스 (433-0146, 019-363-0146)

현금영수증 이용하세요

올해부터 소비자가 공산품이나 음식요금 등으로 현금 5천원 이상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세금경감, 복권당첨 등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회원 가입
 - 회원가입 번호 :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용카드 등
 -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1544-2020
 - 5천원 이상 현금결제시 가입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받음
 -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 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 경비로 공제
 - 학생은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용도로 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 혜택**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영수증+카드사용액-총급여×15%)×20%≤500만원]
 - 사업소득 등 지출증빙으로 사용 : 사업자
 - 복권추첨 : 근로소득자, 사업자, 학생, 교육기관

• 현금영수증 사용 혜택

① 연말정산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영수증+카드사용액-총급여 ×15%)×20%≤500만원]

② 사업소득 등 지출증빙으로 사용 : 사업자

③ 복권추첨 : 근로소득자, 사업자, 학생, 교육기관

※복권추첨 내용

구 분	19세 이상자		18세 이하자		
추첨회수	매월 1회		매월 2회		
등 위	인 원	상 금	인 원	경 품	
1등	1명	1억원	1명	300만원	노트북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전자피아노 핸드폰 등
2등	2명	5천만원	3명	100만원	
3등	3명	5백만원	10명	30만원	
4등	100명	10만원	100명	5만원	
5등	10,000명	1만원	2,000명	1만원	
교육상			1개 학교	500만원	
			1등 당첨자 재학·졸업학교		

문의 _ 남인천세무서 (460-5346)

인천여성의광장 2005년 제2기 수강생 모집

- 우선모집** : 3월 2일 ~ 11일 방문접수
 - 해당교육 : 전문직업교육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보장시설수급자(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혜택 : 우선모집기회부여, 수강료 무료 (단,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재료비등)은 여성의광장으로 문의하세요)
- 일반모집** : 3월 14일 ~ 16일 인터넷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3월 18일 컴퓨터추첨을 통한 모집 후 홈페이지 게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접수기간내 방문하면 수강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 대상 : 인천시 거주 여성 (정원미달 및 야간과정은 남성 가능. 단, 체육과정 제외)
 - 접수방법 : 3월 14일 ~ 16일 (3일간) 인터넷수강신청 → 3월 18일 컴퓨터추첨을 통한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3월 22일까지 지정계좌로 수강료 입금 → 수강등록완료(홈페이지: www.incheonwp.go.kr)
 - 교육기간 : 4월 7일 ~ 6월 30일
 - 수강료 : 6만원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 ▷ **IT장기교육생 추가모집**
 - 교육과정 : 전자상거래웹사이트구축, 스페셜웹디자인마스터, 애니메이션제작, 모바일컨텐츠개발
 - 추가모집기간 : 3월 11일까지
 - 교육기간 : 3월 2일 ~ 10월 31일 (8개월) 수강료 16만원
 - ▷ **전문직업교육** : 웹디자인기반,홍인테리어디자인(3D MAX), 2D 애니메이션제작(플래쉬), 영화같은홈페이지만들기, 컴퓨터 OA,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국가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국가자격증), 워드프로세서(국가자격증), 토익, 기본중국어회화, 기본일본어회화, 기본미디어영어회화, 영어회화첫걸음, 일본어(JPT)시험대비반, 건강다이어트관리사(민간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국가자격증), 신나는상차림, 공인중개사(국가자격증), 독서지도사, 화훼장식기능사(국가자격증), 부동산재테크(공·경매포함)
 - ▷ **문화·체육 교양교육** : 사진아카데미, 생활건강식, 스케치교실, 서양화교실, 생활원에웰빙기공요가, 째즈댄스, 발리댄스, 태보 다이어트댄스, 헬스, 자전거교실
 - ▷ **무료교육** : 양성평등(여성의개인성장프로그램), 전통예절과 다도
- 문의 _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 교육전산팀 (815-7101~3 www.incheonwp.go.kr)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 지원자격** : 성인 남녀(학력 제한 없음)
- 원서교부 기간** : 2월 21일(월) ~ 3월 5일(토) 09:00~18:00(토요일 13:00까지)
- 장소** : 인문사회관 1층(동편) 평생교육원 사무실

- 전형방법** : 교육과정별 접수순으로 모집정원까지만 접수
 - 제출서류** : 등록원서 1부, 반명함판(3㎝×4㎝) 사진 1매
 - 수강료** : 각 과정별로 차이가 있음.
 - 교육기간** : 3월 7일(월) ~ 6월 25일(토) (15주)
 - 교육내용** : 외국어, 교양·취미, 아동지도, 컴퓨터, 민간자격 등
- 문의 _ 경인교육대학 평생교육원 (5401-151~154)

인하대병원 무료 건강강좌

인하대병원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강좌를 엽니다.

- 일시** : 3월 29일(화) 오후 3시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내용** : 당뇨병 관리
- 강사** : 내분비내과 남문석 교수
- 기타** : 참석하시는 분에게 무료 주차권을 드립니다.

문의 _ 인하대병원 교육연구부 (890-2640~2)

재·보궐선거 및 선거법 안내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 선거일** : 4월 30일(토)
- 실시지역**
 - 재선거 (동구 제2선거구) :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 보궐선거 (옹진군 제1선거구) :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 실시사유** : 피선거상실에 의한 퇴직 및 사망

■**생활주변의 각종 선거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연중수시
- 대 상**
 - 공공단체·기관의 임원선거
 - 아파트자치회장, 노동조합장 등 각종단체의 임원선거
 - 기타 생활주변의 각종선거
- 지원내용**
 - 투표함·기표대 등 선거장비 대여
 - 선거절차 안내 및 지원
 - 선거관련 규정 및 서식 등 자료제공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치인에게서 금품·음식물 등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정치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및 제보 _ 시 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425-3939

화도종합복지관 수강생 모집

화도종합복지관에서는 기술교육, 취미교육 등 수강을 모집합니다.

- **접수대상** : 인천시 거주자
 - **접수기간** : 3월 2일(수) ~ 4월 4일(월)
 - **접수장소** : 화도진종합복지관 1층 사무실
 - **접수방법** : 본인이 신청서 작성제출 (신분증확인)
 - **교육기간** : 4월 6일(수) ~ 6월 23일(목)
 - **수강료** : 1인 월 1만원 (3개월 과정 3만원 일시 납부)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수강료
 - **과목**
 - 기술교육(3개월) : 도배기능사양성반, 양재반(초급, 중급), 한식조리반(자격증반, 생활요리반)
 - 취미교육(3개월) : 컴퓨터자격증반, 컴퓨터초급(오전, 오후), 컴퓨터중급, 꽃장식, 생활일어, 홈패션, 한복만들기, 한지공예, 생활제과, 반찬요리, 메이크업
- 아울러 3월에는 무료 단기특강으로 도시락 만들기 등을 진행합니다.

2005년도 인천시 시민정보화교육 실시

우리는 계층간·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함께하는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해 '2005년도 시민정보화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 기초다지기, 엑셀, 한글, 포토샵 등 컴퓨터 기초과정과 활용과정으로 총 6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또 IT환경과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디지털카메라 대중화 에 따라 '가족사진 편집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포토샵 과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3월부터는 시민 사이버포털 시스템을 이용한 '시민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동안 규칙적인 시간할애가 어렵거나 인근에 교육장이 없어 정보화교육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정보화교육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 2005년 인천시 시민정보화교육 세부 일정표

접수기간	교육기간	오전 10:00~12:00	오후 15:00~17:00	야간 19:00~21:00
2.28~3.2	3.7~3.18(10)	한글2002	한글2002(실버)	엑셀
3.14~3.15	3.21~4.1(10)	엑셀	엑셀(실버)	
3.28~3.29	4.4~4.15(9)	포토샵 초급(실버)	포토샵 초급	한글2002
-	4.18~4.29(10)	포토샵 중급(실버)	포토샵 중급	
4.25~4.26	5.2~5.13(9)	한글2002	한글2002(실버)	프리젠테이션작성
5.9~5.10	5.16~5.27(10)	컴퓨터기초다지기	컴퓨터기초다지기(실버)	
5.23~5.24	5.30~6.10(9)	엑셀(실버)	엑셀	포토샵
6.7~6.8	6.13~6.24(10)	포토샵 초급(실버)	포토샵 초급	홈페이지 만들기
-	6.27~7.8(10)	포토샵 중급(실버)	포토샵 중급	
7.4~7.5	7.11~7.22(10)	홈페이지만들기	홈페이지만들기(실버)	
8.1~8.2	8.8~8.19(9)	파워포인트(실버)	파워포인트	
8.16~8.17	8.22~9.2(10)	컴퓨터기초다지기	컴퓨터기초다지기(실버)	
8.29~8.30	9.5~9.16(10)	엑셀(실버)	엑셀 초급	한글2002
9.12~9.13	9.20~9.30(9)	한글2002(실버)	엑셀 중급	
9.26~9.27	10.4~10.14(9)	포토샵 초급	포토샵 초급(실버)	엑셀
-	10.17~10.28(10)	포토샵 중급	포토샵 중급(실버)	
10.24~10.25	10.31~11.11(10)	홈페이지 만들기(실버)	홈페이지 만들기	포토샵
11.7~11.8	11.14~11.25(10)	한글2002(실버)	한글2002	
11.21~11.22	11.28~12.9(10)	엑셀	엑셀(실버)	

문의 _ 인천사이버시티센터 (440-1501~2 <http://cybercitycenter.incheon.go.kr>)

- 3월 무료 단기특강

프로그램명	대상	모집일시	교육일시	재료비	모집인원
봄나들이 도시락만들기	인천시 거주자	3월 2일~ 25일	3월 28일(월)	2만원	30명
김밥과 샌드위치			3월 29일(화)		
어린이드레스 (행사복)만들기			10:00~13:00	2만5천원	15명

문의 _ 화도종합복지관 (765-2198)

제2기 청소년 기자단 모집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소리를 모아 세상에 전달하며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제2기 청소년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 활동기간 : 3월 ~12월
- 활동내용 : 신문발간 (취재활동, 기사글 교육 등)

- 모집기간 : 3월 19일까지
- 활동장소 : 화수청소년문화의집
- 활동대상 : 청소년 10명 (초6~고등학생)
- 인센티브 : 봉사활동 20시간, 기자증 발급

문의 _ 화수청소년문화의집 (762-7942)

건강관리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의 건강증진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돕기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단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을 미리 선정 한 후 공단의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무료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터미널시네마
〈공공의적2〉 〈말아톤〉 상영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터미널시네마에서는 1월 27일부터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적2〉와 정운철 감독의 〈말아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적2〉는 설경구, 정준호 주연으로 강우석 감독의 선과 악의 색깔이 분명한 신작 영화입니다.

김미숙, 조승우 주연의 <말아톤>은 자폐증을 가진 스무살 청년의 마라톤 도전기를 통해 울음과 웃음의 백만불짜리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상영 프로그램은 극장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 관람요금 : 일반 6천5백원,
학생 5천5백원

- 주차편의
 - 남측 · 서측의 터미널
직영 주차장 : 50%할인
 - 동측 · 지하의 신세계 주차장
: 백화점 구매영수증 소지자 무료

문의 _ 터미널시네마 (430-7374, 7377)

2005년 상반기 상공회의소 자격검정 시행일정

■ 국가기술자격 (전문사무, 기초사무)

종 목	회 차	구 분	등 급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전자상거래 관리사	제1회	필기	2급	3.31~4.6	-	5.1	5.25
		실기	2급	5.26~6.1	-	6.19	7.26
워드프로세서	제1회	실기	1·2·3급	3.31~4.6		4.24	6.1
	제2회	필기	1·2·3급	4.19~25	4.27	5.22	6.15
컴퓨터활용능력	제1회	실기	1·2·3급	3.17~23		4.10	5.18
	제2회	필기	1·2·3급	4.12~18	4.20	5.15	6.8
전산회계 운용사	제1회	필기	2·3급	3.2~8	-	4.2	4.26
		실기	2·3급	4.27~5.3	-	5.28	6.30
전자상거래 운용사	제1회	필기	-	3.31~4.6	-	5.1	5.25
		실기	-	5.26~6.1	-	6.19	7.26
비서	제1회	실기	2·3급	워드프로세서 실기시험 일정과 동일			
한글속기	제1회	1·2·3급		5.26~6.1	-	6.19	7.26


■ 실업계고등학교 필기면제검정

종 목	회 차	등 급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행사	제1회	3급	-	3.22~24	4.17	5.16

■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상공회의소 한자

종 목	회 차	등 급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제1회	1·2·3급	5.11~17	-	6.11	7.5
상공회의소한자	제1회	고급·중급	2.24~3.7	-	3.27	4.21
	제2회	고급·중급	5.9~23	-	6.12	7.5

문의 _ 인천상공회의소 (501-6700 www.incha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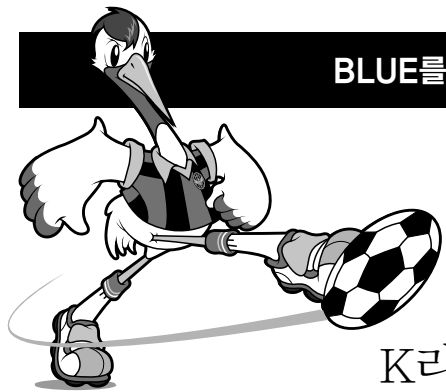


사업 고민 좌~악 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광고료(1개월 · 컬러 기준)		
표4 (맨뒤 겉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정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LUE를 입자! BLUE를 만들자! BLUE가 되자!

푸른 물결 2005

레플리카(유니폼)를 구매하고
K리그 인천의 모든 홈경기 입장 카드를 받으세요



2005년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 입장카드

+



2005년 인천유나이티드
레플리카

판매장소 : 구단사무실, 구단용품 매장(문학경기장 동문매표소 앞)

결제방법 : 현금, 온라인입금, 신용카드

(입금계좌 : 기업은행 434-010450-04-037 / 예금주 : (주)인천시민프로축구단)

레플리카 + 홈경기입장카드 = 45,000원

단체구매 : 10벌 이상 구매의 경우 택배비 구단 부담

구매문의 :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사무국 (032-423-1500)



2005년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 일정

| 컵대회 |

회차	일자	요일	시간	대진	장소
2	3월9일	수요일	19:30	인천 vs 전남	문학월드컵
4	3월16일	수요일	19:30	인천 vs 성남	문학월드컵
6	4월2일	토요일	15:00	인천 vs 부산	문학월드컵
8	4월17일	일요일	15:00	인천 vs 서울	문학월드컵
11	5월1일	일요일	15:00	인천 vs 광주	문학월드컵
13	5월8일	일요일	15:00	인천 vs 전북	문학월드컵

| 전기리그 |

회차	일자	요일	시간	대진	장소
1	5월15일	일요일	15:00	인천 vs 포항	문학월드컵
2	5월18일	수요일	19:30	인천 vs 울산	문학월드컵
4	5월28일	토요일	19:00	인천 vs 전남	문학월드컵
5	6월11일	토요일	19:00	인천 vs 부산	문학월드컵
7	6월18일	토요일	19:00	인천 vs 대구	문학월드컵
9	6월25일	토요일	19:00	인천 vs 서울	문학월드컵
11	7월2일	토요일	19:00	인천 vs 전북	문학월드컵
13	7월10일	일요일	19:00	인천 vs 성남	문학월드컵

| 후기리그 |

회차	일자	요일	시간	대진	장소
20	10월5일	수요일	19:30	인천 vs 부천	문학월드컵
22	10월19일	수요일	19:30	인천 vs 수원	문학월드컵
24	10월30일	일요일	15:00	인천 vs 대전	문학월드컵
26	11월9일	수요일	19:00	인천 vs 광주	문학월드컵

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새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모양은 "떡익"이며, 그 맛과 내용물은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

삼국시대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떡케익전문기업

떡파는사람들의 "떡케익"

이젠 떡케익으로 기쁨을 함께하세요!

<http://www.dcake.co.kr>



떡케익대표 브랜드
떡보의 하루™
상표출원 : 40-2005-0004319

T.1544-1582